이 금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

-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유 지 연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

-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

이 금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유 지 연

인 준 서

유지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최근 각자의 능력과 개성에 맞는 패션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패스트 패션에서부터 고가의 디자이너 의류까지 패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패션산업은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저수익 산업에 머물지 않고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산업의 하나로 인식되어 많은 선진국들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며 주력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산업은 기존의 저임금 노동집약적 입지지향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기술집약적 창조산업적 입지지향까지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경제와 함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지리학적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입지적 특성 및 공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를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집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부문별·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현황과 부문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패션산업의 분포 특징을 모색하였다. 또한, 패션산업의 체계에 따른 공간분포를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간적 군집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타 직능 변수와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섬유 및 봉제산업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던 기존의 연구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패션산업으로 확장하여 그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산업의 분포

및 입지에 대한 이론화 작업의 기반이 될 것이며, 향후 패션산업의 분포 및 입지계획과 관련된 정책입안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3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1. 패션산업 ·····6

2. 패션산업의 발달과정 ·····10

3. 선행연구 고찰 ·····13

1) 패션산업에 관한 연구·····13

2) 공간통계분석에 관한 연구·····19

Ⅲ. 패션산업의 성장과 공간분포·····21

1. 패션산업의 성장 ·····21

1) 전국 패션산업의 현황 및 추이 ·····21

2) 수도권 패션산업의 현황 및 추이 ·····24

2. 부문별·지역별 패션산업의 공간분포 ·····26

1) 패션제조업의 공간분포 ·····26

2) 패션판매업의 공간분포 ·····32

3) 패션제조업과 패션판매업의 공간분포 특징 : 입지계수(LQ)·····39

Ⅳ.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 패턴 분석 ·····54
1. 공간적 분포 패턴 분석 방법 ·····55
2. 직능별 패션산업의 전역적(Global)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58
3. 직능별 패션산업의 국지적(Local)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LISA ·····59

Ⅴ.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타 직능과의 관계 ····77
1.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타 직능과의 관계 분석 ·····77
1) 분석 방법: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77
2) 모형의 구성 ·····79
3) 분석 결과 ·····80

Ⅵ. 결론 ·····87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표 목 차

[표 1] 패션산업의 분류 ····· 9
[표 2] 한국 의류산업의 생산 공간 및 판매 공간 변화 ····· 12
[표 3] 패션산업에 관한 선행연구 ····· 17
[표 4] 공간통계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 20
[표 5]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성장 (2000-2010) ····· 22
[표 6] 전국 시도별 패션산업 점유율 (2010) ····· 24
[표 7] 수도권 패션제조업 상위 5위 지역 (2000) ····· 26
[표 8] 수도권 패션제조업 상위 5위 지역 (2005) ····· 28
[표 9] 수도권 패션제조업 상위 5위 지역 (2010) ····· 30
[표 10] 수도권 패션판매업 상위 5위 지역 (2000) ····· 33
[표 11] 수도권 패션판매업 상위 5위 지역 (2005) ····· 35
[표 12] 수도권 패션판매업 상위 5위 지역 (2010) ····· 37
[표 13] 수도권 패션제조업체 입지계수(LQ)의 지역 구분 ····· 42
[표 14]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 입지계수(LQ)의 지역 구분 ····· 46
[표 15] 수도권 패션판매업체 입지계수(LQ)의 지역 구분 ····· 49
[표 16] 수도권 패션판매업 종사자 입지계수(LQ)의 지역 구분 ····· 52
[표 17] 패션산업의 7가지 직능별 분류 ····· 54
[표 18] LISA 공간적 연관성의 4가지 유형 ····· 57
[표 19]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자기상관분석 결과 : 전역적 모란지수 (2009) ····· 58
[표 20] HH 군집 형성에 따른 직능의 그룹화 ····· 59
[표 21] 디자이너의 LISA 결과 (2009) ····· 61
[표 22] 패턴사의 LISA 결과 (2009) ····· 62
[표 23] 재단사의 LISA 결과 (2009) ····· 65

[표 24] 미싱사의 LISA 결과 (2009) ····· 67
[표 25] 생산관리자의 LISA 결과 (2009) ····· 69
[표 26] 링킹사의 LISA 결과 (2009) ····· 73
[표 27] 기능종사원의 LISA 결과 (2009) ····· 74
[표 28] 직능별 HH 군집 형성 지역 ····· 76
[표 29] 직능별 HH 군집 형성의 결정 변수 ····· 80
[표 30] 모형 1, 2의 요약 : 디자이너, 패턴사 ····· 81
[표 31] 모형 1, 2의 분석 결과 : 디자이너, 패턴사 ····· 82
[표 32] 모형 3, 4, 5의 요약 :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 ····· 83
[표 33] 모형 3, 4, 5의 분석 결과 :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 ····· 84
[표 34] 모형 6, 7의 요약 : 링킹사, 기능종사원 ····· 84
[표 35] 모형 6, 7의 분석 결과 : 링킹사, 기능종사원 ····· 85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흐름도 ····· 5
〈그림 2〉 패션산업의 순환 체계 ····· 7
〈그림 3〉 패션산업의 범위 ····· 8
〈그림 4〉 1970년대 동대문 의류시장과 명동 ····· 11
〈그림 5〉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매출액 추이 (2003-2009) ····· 22
〈그림 6〉 수도권 패션산업의 성장 추이 (2000-2010) ····· 25
〈그림 7〉 수도권 패션제조업체의 공간분포 (2000) ····· 27
〈그림 8〉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공간분포 (2000) ····· 27
〈그림 9〉 수도권 패션제조업체의 공간분포 (2005) ····· 29
〈그림 10〉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공간분포 (2005) ····· 29
〈그림 11〉 수도권 패션제조업체의 공간분포 (2010) ····· 31
〈그림 12〉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공간분포 (2010) ····· 31
〈그림 13〉 수도권 패션판매업체의 공간분포 (2000) ····· 33
〈그림 14〉 수도권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공간분포 (2000) ····· 34
〈그림 15〉 수도권 패션판매업체의 공간분포 (2005) ····· 35
〈그림 16〉 수도권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공간분포 (2005) ····· 36
〈그림 17〉 패션판매업체의 공간분포 (2010) ····· 37
〈그림 18〉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공간분포 (2010) ····· 38
〈그림 19〉 패션제조업체의 입지계수(LQ) 분포 (2000, 2005, 2010) ····· 43
〈그림 20〉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입지계수(LQ) 분포 (2000, 2005, 2010) ·· 47
〈그림 21〉 패션판매업체의 입지계수(LQ) 분포 (2000, 2005, 2010) ····· 50
〈그림 22〉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입지계수(LQ) 분포 (2000, 2005, 2010) ···· 53
〈그림 23〉 디자이너의 핫스팟지도 (2009) ····· 64
〈그림 24〉 패턴사의 핫스팟지도 (2009) ····· 64

〈그림 25〉 재단사의 핫스팟지도 (2009) ····· 72
〈그림 26〉 미싱사의 핫스팟지도 (2009) ····· 72
〈그림 27〉 생산관리자의 핫스팟지도 (2009) ····· 73
〈그림 28〉 링킹사의 핫스팟지도 (2009) ····· 76
〈그림 29〉 기능종사원의 핫스팟지도 (2009) ····· 76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진행된 산업화시기에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했던 패션산업이 더 이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게 되면서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었고,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개발도상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웃 소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유지의 정책을 채택하려는 흐름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패션산업이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 등 소비자의 욕구 만족감에 따라 가치가 부여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역 및 국가 경제 측면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 된 산업 환경에서 전 세계의 많은 패션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생산지를 해외로 이동하고 결합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패션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고 있어 패션산업은 현재 가장 세계화된 산업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Bradley, et al., 1993). 따라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그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구성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패션산업의 경제지리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Dicken, 2011; Dickerson 2003).

이 같은 특성을 간파한 선진국들은 패션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거액의 자금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할 만큼 세계의 여러 국가와 도시들이 패션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패션산업이 1990년대 후반 IMF를 극복하는데 공헌하였고, 최근에는 기존의 패션산업이 지니고 있던 노동집약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집약적이며 산업 특화적인 측면을 강조한 패션클러스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되고 있다

(Nahm, 2001; 주수현 외,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경제와 함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지리학적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입지적 특성 및 공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를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집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패션산업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패션산업의 향후 연구와 관련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주로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섬유 및 봉제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지닌 패션산업으로 확장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패션산업의 개념을 정리하고 패션산업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한다.

둘째,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현황과 부문별·지역별 패션산업의 분포 변화를 파악한다. 더불어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패션산업의 분포 특징을 모색한다.

셋째, 패션산업의 체계에 따른 공간분포를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간적 군집을 분석한다.

넷째,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타 직능 변수와의 관계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먼저 패션산업의 수도권 지역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차원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패션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본 연구의 초점으로 하였고, 수도권 지역은 시군구 총 79개 지역(서울 지역 25개, 경기 지역 44개, 인천 지역 10개)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직능별 패션산업의 분포 패턴 분석을 위해서는 패션산업의 특화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서울 지역(424개 동)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설정하였다. 직능별 패션산업의 분포패턴 분석 및 통계분석을 위한 기준연도는 2009년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구득한 자료의 가장 최근 시점이 2009년인 것을 고려한 것이다. 여타 자료의 분석은 2000년대 이후 패션산업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패션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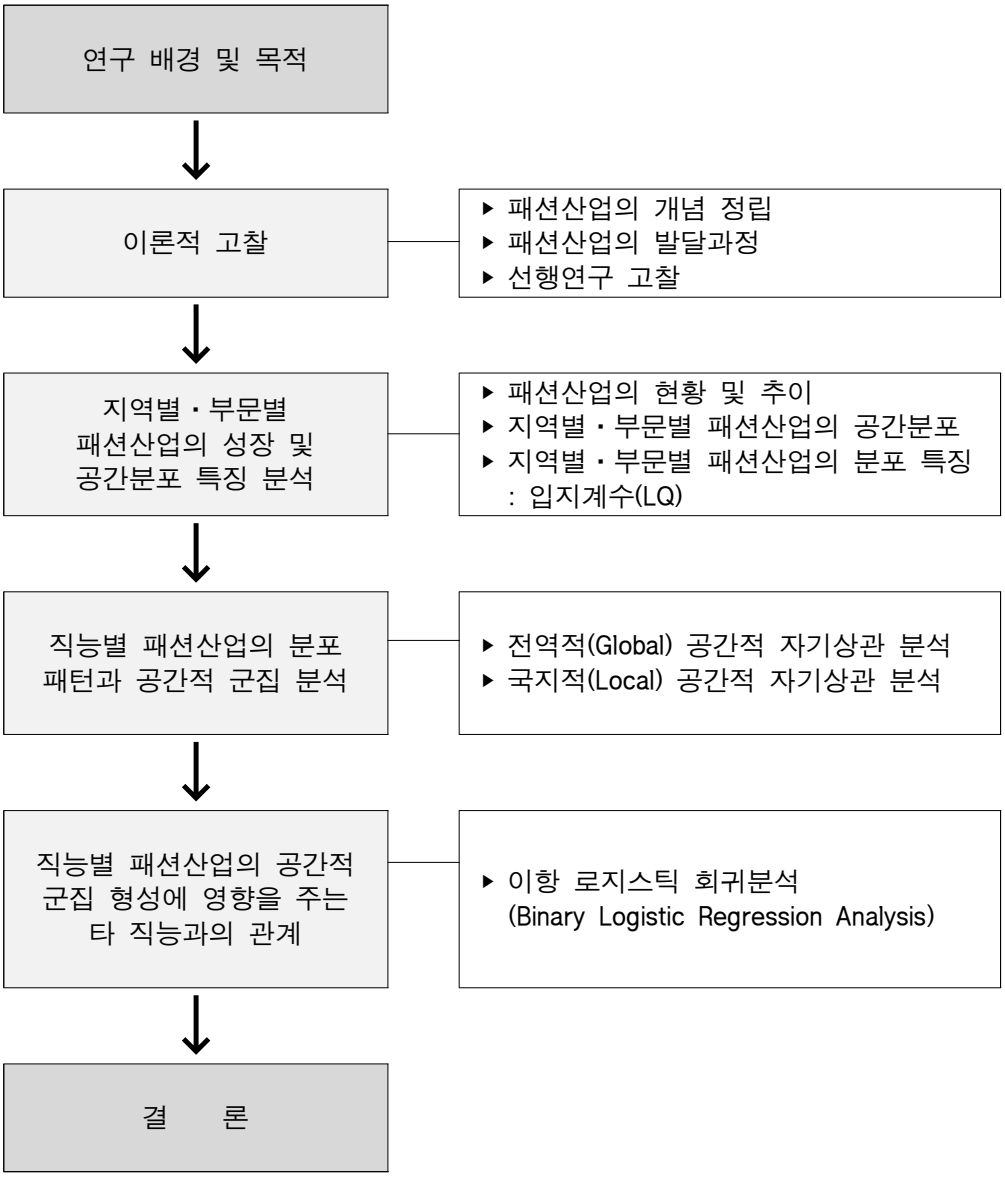
둘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 패션산업의 현황 및 추이와 공간분포를 파악하였다. 또한, 패션산업의 분포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입지계수를 적용하여 패션산업의 상대적 특화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직능별 패션산업의 분포 패턴과 공간적 군집을 분석하기 위해 전역적 스케일과 국지적 스케일의 두 가지 차원에서 Moran's I를 이용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타 직능 변수와의 관계식을 도출하기 위해 로짓 모형을 구축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와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구득한 직능별 패션산업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 패키지는 Arc GIS 9.3과 SPSS Statistics 19이다.


연구 배경 및 목적
이론적 고찰
▸ 패션산업의 개념 정립
▸ 패션산업의 발달과정
▸ 선행연구 고찰
지역별・부문별
패션산업의 성장 및
공간분포 특징 분석
▸ 패션산업의 현황 및 추이
▸ 지역별・부문별 패션산업의 공간분포
▸ 지역별・부문별 패션산업의 분포 특징
: 입지계수(LQ)
직능별 패션산업의 분포
패턴과 공간적 군집 분석
▸ 전역적(Global)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 국지적(Local)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타 직능과의 관계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결 론

<그림 1> 연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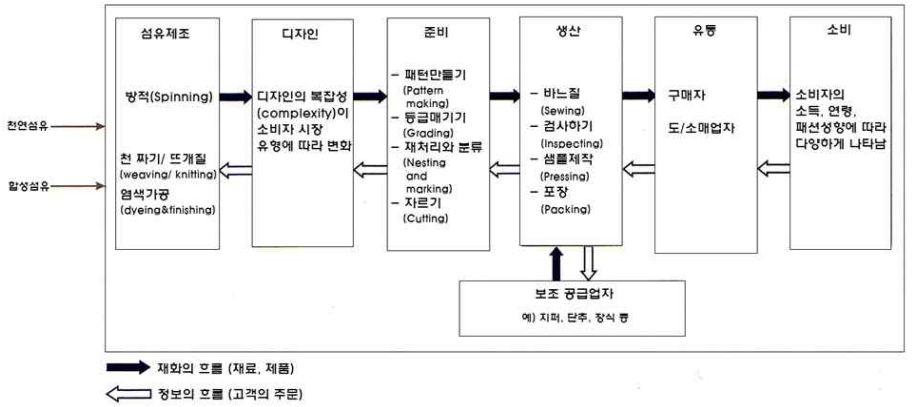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패션산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패션산업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패션산업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한다. 또한, 패션산업의 발달과정과 국내·외 지리학에서 다루어진 패션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패션산업

패션산업은 독특함과 개성이 상품 생산에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소재·디자인·패션·유통의 조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패션산업의 개념은 광범위하여 학자들도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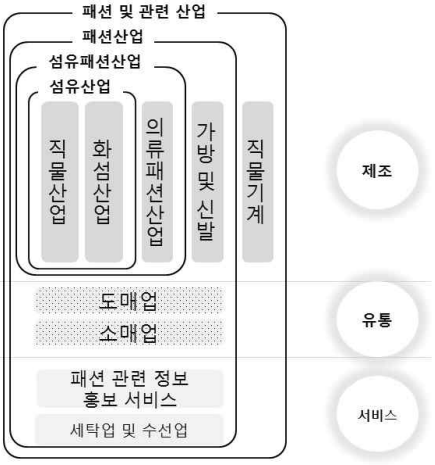
순환 체계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보면 패션산업에는 섬유생산과 봉제를 거쳐 유통과 판매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업부문이 포함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션산업이라 하면 섬유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직물을 소재로 하여 기획·디자인을 통해 의복이 제조, 판매되는 과정에 한정된다. 패션산업은 디자인 패턴과 샘플 제작으로 구성된 시작 공정, 그리고 본 공정 등 의류의 기획 및 생산, 제조된 의류의 판매 등 디자인→생산→판매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다(〈그림 2〉 참고).



<그림 2> 패션산업의 순환 체계

출처: Dicken(2011)

패션산업은 〈그림 3〉과 같이 산업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패션산업의 핵심적인 제조 분야인 섬유패션산업은 섬유산업과 의류패션산업(Apparel Industry)으로 구성되며, 섬유산업은 다시 화학섬유(합성섬유)를 생산하는 화섬산업(Fiber Industry)과 직물산업(Textile Industry)으로 나눌 수 있다. 오랫동안 섬유산업은 섬유, 직물뿐 아니라 의류 제조업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의류제품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단순한 옷이 아닌 패션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최근에는 섬유패션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섬유, 직물, 의류패션산업을 전통적인 섬유패션산업이라고 한다면, 섬유를 주 원료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가죽을 이용하는 가방, 신발 제조업도 패션산업에 포함된다. 또한 패션산업은 제조업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통 분야의 의복, 액세서리 가방, 신발 등을 다루는 도소매업과 패션 관련 정보 서비스도 포함한다. 이러한 분야 이외에도 패션제품과 관련된 영역들이 다수 있다(유혜경 외, 2012).



<그림 3> 패션산업의 범위

출처: 유혜경・정찬진・황진숙(2012)의 내용을 재구성

본 연구에서의 패션산업의 범위는 〈그림 3〉의 제조와 유통 부문에 해당하는 패션산업의 범위와 일치하며, 패션산업의 구성적 특성과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고려하여 패션산업을 크게 제조와 판매(유통) 부문으로 나누었고, [표 1]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패션산업을 각 분류에 할당하였다. 패션제조업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분류코드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분류코드 15)' 2개의 중분류 내 24개 세세분류를 최소 분류단위로 설정하였다. 패션판매업은 패션관련 도매업과 소매업을 통칭하며 14개 세세분류가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제조업과 패션판매업의 두 부문을 합친 38개 세세분류를 본 연구의 패션산업으로 정의하였다([부록 표 1] 참고).

[표 1] 패션산업의 분류

패션산업의 분류				9차 KSIC(2007)		8차 KSIC(2000)	
				산업 코드	산업명	산업 코드	산업명
패션 산업 (38개)		패션제조업 (24개)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D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패션 판매업 (14개)	패션 도매업 (6개)	G4641	가정용 섬유,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도매업	G5141	가정용 섬유제품 및 의복 도매업
				G4642	신발 도매업	G5142	신발 도매업
			패션 소매업 (8개)	G4742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G5241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G4742	신발 소매업	G5242	신발 소매업

자료: 통계청, 2000(8차), 2007(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 패션산업의 발달과정

현재 패션산업의 시초인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근대공업의 형태를 갖춘 것은 일제시대인 1917년 일본의 거대재벌 미쓰이사가 부산에 설립한 조선방직 주식회사(일본 자본)와 3·1운동 당시인 1919년 인촌 김성수 선생에 의해 설립 된 경성방직 주식회사 등 근대적인 면방직 공장이 출현하면서부터이다[1].

1950년대 들어 6.25 전쟁 중 피난 온 평양인들이 서울 남대문시장에 소규모 의류업체를 시작하였고, 1955년에는 총 의류 생산의 60%가 서울 동대문 근처의 평화시장에서 이루어졌다.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평화시장에 자리를 잡은 의류업체들은 의류를 생산할 뿐 아니라 판매도 하는 제조와 유통이 일치된 구조였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의류는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뒤떨어지는 상품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유행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외출복은 부티크 형태의 양장점에서 맞춤 제작되었다. 특히, 서울 명동은 양장점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연예인들이 양장점에서 무대의상을 맞춰 입고 이들을 따라 일반인들의 단골도 늘어나면서, 유행의 중심지이자 양장점 시대를 이끄는 명소가 되었다. 195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가 개최되었고, 1950년 말부터 시작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봉제업이 수출주도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4.19 혁명, 5.16 군사정변의 사회 혼란기를 거쳐서 1960년대 초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저임금에 바탕을 둔 보세가공체제의 의류 봉제업이 수출의 주역으로 더욱 더 발전하였다. 의류 봉제업은 60년대를 거쳐 7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의류 수출을 통해 국내 기업들은 의류 대량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축적하였고, 이는 한국 의류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한편,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수준 향상에 맞추어, 1970년대

1) 한국섬유산업협회(KOFOTI) 섬유산업 역사 http://www.kofoti.or.kr/Info/Fiber_history.php

<그림 4> 1970년대 동대문 의류시장과 명동

출처: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Dyzm&articleno=7080092&categoryId=350106&regdt=20110626174254#ajax_history_home

초반부터 동일레나운(1972), 반도(1974), 제일모직(1974), 코오롱(1977)과 같은 대기업들이 기성복 사업에 진출하였다. 이들 의류기업은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의 의류업체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녔다.

1970년대에는 오일쇼크에 이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계속되었고, 유럽과 미국에서 다자간협상(Multi Fiber Arrangement)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출을 규제하게 되자 자국 섬유, 의류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주요 수출국(Big 3)인 한국, 홍콩,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품을 생산하던 국내 의류 전문 업체들이 내수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1980년대 대현, 나산, 성도와 같은 중소 의류 전문 업체들이 국내 의류 시장에 진출하고 외국 브랜드의 라이센스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의류산업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이는 한국 의류산업이 질적 성장을 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 의류산업의 생산공간과 판매 공간은 세계적 변화는 [표 2]와 같다.

[표 2] 한국 의류산업의 생산 공간 및 판매 공간 변화

시기 / 구분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
생산 공간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원료 구입 후 제품을 생산함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생산 공간이 분리	한국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적극적으로 침투하여 생산 공간을 세계화
판매 공간	미국, 일본으로의 판매 공간의 한정된 세계화	유럽 및 캐나다 등으로 확대된 판매 공간의 세계화	개도국으로도 판매 공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개도국에게 국내를 판매 공간으로 내줌

출처: 김은정(1999)의 내용을 재구성

1990년대에는 다양한 원산지와 가격대의 의류 수입이 증가하였고, 국내 업체들 간의 경쟁도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IMF 구제금융 위기 동안 의류업계는 극심한 불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가속되면서, 기획, 생산, 유통에서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에서 저임금 혜택을 위해 주로 중국에 진출했던 의류 봉제 공장들은 중국의 임금 상승에 따라 이미 다수의 동남아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스타일에 따라 국내 생산의 비중을 높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제 양적 확대를 마감하고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고부가 제품 생산 체제로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패션업계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술, 문화, 정보를 접목시킨 지식산업으로 전환해 고부가가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생산, 유통, 정보화 체제 구축 및 고유 브랜드 의류 수출이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유혜경 외, 2012).

3. 선행연구 고찰

1) 패션산업에 관한 연구

국내·외 지리학계에서는 산업의 입지변화, 재구조화, 해외집적투자, 유연성 이론, 집중화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패션산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기존 연구들에서의 산업의 범위는 현재의 패션산업의 범위와 흡사하지만, 과거에는 패션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섬유공업, 섬유산업, 섬유·의류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을 모두 패션산업에 관한 선행연구로 간주하였다. 본 절에서는 패션산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기 위해 지리학에서 다루어진 기존의 연구 동향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먼저 산업의 입지변화 측면에서 김선배(1988)는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산업기술변화와 입지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기술변화가 섬유공업의 상당한 입지변화를 유발시켰으며, 1981년 이후 기술정보 구득이 용이하고, 지역적 기술 환경이 우수한 대도시 지역에서 섬유공업의 입지의 재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문남철(2003)은 전 세계-동아시아-중국으로 연구의 지역적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한국 섬유·의류산업의 생산 활동의 해외입지의 시계열적 변화와 입지이전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계 수준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 국내생산-해외수출의 구조를 보였고,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 동남아로 생산 활동의 해외이전이 이루어지면서 해외생산-해외수출 구조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1980년대 말 이후에는 동남아 및 중국으로의 진출이 확대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북미 및 유럽시장으로 생산입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국가 수준에서는 생산 입지가 아시아 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 확대되었으며, 이는 생산비용과 정책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생산 입지는 북부 연해지역과 동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지역이 조선족의 주요 거주지이며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이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가 서로 다른 섬유·의류산업의 스트림별 해외입지의 차이성과 그 요인을 분석한 결과 스트림별 입지 조건과 지역별 입지 여건, 직접투자의 동기, 기업의 전략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션산업의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Scott(2006)은 산업 조직, 집적, 공간분화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낮은 기술과 노동집약적 성격을 지닌 의류산업, 신발산업, 가구산업의 3가지 대표 산업이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조화 과정을 겪고 있는지와 이러한 재구조화 과정이 이 산업들의 조직적 구성과 공간적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규명하였다.

김은정(1999)은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까지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별 한국섬유대기업들의 재구조화와 그에 따른 공간분업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 까지는 이전의 시기에 형성되어 있던 국내 공간분업지역을 확대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며 기존의 생산 공간 위에 R&D 공간이 중첩되는 구조를 보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섬유산업의 측면에서 대도시의 네트워크 생산구조가 종속적인 특성을 가졌으며 이 시기부터 섬유 생산 공간의 세계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철우·박양춘·박규택(1999)은 재구조화를 대구시 섬유산업을 사례로 지역 내·외적 요인들의 관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철우·박양춘·김은정(2000)은 재구조화 과정에서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해 대구시 섬유기업들이 생산기술, 노동력 이용, 기업 간 관계에서 어떤 유연성 전략들을 추구하였으며 이것이 공간을 통하여 어떻게 표출·재조직되

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섬유기업내의 외부화의 정도와 기업의 규모가 생산체계상의 공간분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박양춘·김은정(2001)은 정부의 섬유 정책 변화와 함께 섬유산업이 어떤 재구조화 전략을 채택해 왔으며 섬유산업의 공간 구조는 어떻게 재조직되었는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크게 서울과 인천·경기, 대구와 경상북도의 2축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무역기능과 내수판매기능의 주체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으로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섬유 생산 공간의 세계화 전략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중남미 지역으로, 1990년대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의 생산 공간 확대 경향이 나타났고,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외집적투자에 초점을 둔 패션산업에 관한 연구로 이승철(2007)은 한국 대 베트남 섬유·의류 투자기업의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의 정체성 및 국지적 착근성의 특징을 분석하고 전환경제의 제도적 역동성과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행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한국 대 베트남 섬유·의류 기업 18개 기업체와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치사슬과 네트워크의 유형 및 특성을 규명하였다.

지현철·이승철(2007)은 2000년 이후 대 중국 중심의 한국 노동 집약형 섬유·의류 투자기업특성 변화와 이에 따른 지리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고찰하였다. 특히 베트남이 주요 해외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게 된 입지 결정 요인을 세계적, 국제적, 국가적 수준에서 분석하였고, 생산자본 국제화의 지리적 변화는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의 유출 요인과 흡입 요인을 수렴시킨 결과임을 제시하였다.

김미성·이승철(2009)은 중국의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대 중국 한국 섬유·의류 해외 투자 기업의 입지와 경영 활동에 끼친 영향을 통해서 해외직접투자와 제도적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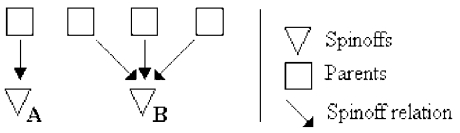
이승철·김미성(2010)은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 전환과정에 나타난 한국 섬유 및 의류 투자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상품사슬 이론을 바탕으로 투자기업들의 사업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유형 별 가치사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Wenting(2008)은 본인의 연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의 전기 565권을 수집하여 각 패션 디자이너들의 최초 양장점의 위치와 입문 시기, 이전 시기, 경력 정보(예: 수석 디자이너 밑에서 일한 경력) 등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1858년부터 2005년까지 패션 디자인 산업의 스핀오프 관계(Spinoff Relation)[2]와 그에 따른 공간적 형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핀오프 관계를 통한 패션 디자이너는 모(Parents) 패션 디자이너의 성공을 그대로 물려받거나 경쟁 디자이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스핀오프 관계를 통한 패션 디자이너들의 반복적 모방은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패션 디자인의 클러스터링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강현수(1995)는 유연성 이론에 입각하여 1980년대 후반 이후 서울 지역의 의류산업의 변화 과정을 유연성의 증대라는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공간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박규택(1997)은 196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섬유 공업이 대구 지역에 집중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1960년 이후 대구 지역의 섬유 공업 집중화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산업과 노

2) 스핀오프 관계(Spinoff Relation)



계보적 전문 용어에 따르면, 모(Parents)의 수가 많을수록, 스핀오프의 이전 경력이 더 많다. 예를 들어, B는 A보다 이전 경력이 더 많은 것으로 간주된다.

동 정책, 지역의 섬유 자본, 지역의 섬유 노동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 3] 패션산업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대상지역	시기	산업범위
김선배 (1988)	입지변화	전국 광역권	1950년대 ~1980년대	섬유공업
문남철 (2003)		세계-동아시아 -중국	1978년 ~2001년	섬유・의류산업
Scott, A. J. (2006)	재구조화	전 세계	2000년대	의류산업
김은정 (1999)		전국	1970년대 ~1990년대	섬유산업
이철우・박양춘・박규택 (1999)		대구 지역	1970년대 ~1980년대	섬유산업
이철우・박양춘・김은정 (2000)		대구 지역	1990년대	섬유산업
박양춘・김은정 (2001)		전국	1960년대 ~1990년대	섬유산업
이승철 (2007)	해외집적투자	-	2007년	섬유・의류산업
지현철・이승철 (2007)		-	2000년 ~2007년	섬유・의류산업
김미성・이승철 (2009)		-	2007년	섬유・의류산업
이승철・김미성 (2010)		-	2009년	섬유・의류산업
Wenting, R. (2008)	스핀오프 공간적 분화	전 세계	1858년 ~2005년	패션 디자인 산업
강현수 (1995)	유연성 이론	서울 지역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의류산업
박규택 (1997)	집중화	대구 지역	1960년 ~1980년대	섬유공업

이상 지리학에서 다루어진 패션산업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주제와 그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산업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노동집약적 성격을 강조한 섬유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2000년대 초 전 산업에 걸쳐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면서 패션산업의 특성과 입지에 변화가 나타나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0년 이후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 변화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의 연구 대상 지역이 전국과 대구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시도 단위 이하의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어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패션산업이 다양하고 복잡한 체계를 가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패션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이유로 패션산업을 부문별·직능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섬유 및 봉제산업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연구에서부터 지식기반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패션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2000년 이후의 패션산업을 부문별·직능별로 나누어 그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거시적 차원에서는 수도권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부문별 패션산업의 공간분포와 그 특징을 파악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서울 지역(읍면동)을 대상으로 직능별 패션산업의 분포 패턴 및 공간적 군집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공간통계분석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방법 중 하나인 공간통계분석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참고). 최현우·김계현·이철용(2007)은 남해 광양만을 연구 대상으로 해양환경의 시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및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통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통계분석 시 고려해야 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간통계 분석의 효과적인 적용방안도 검토하였다.

이희연·황은정(2008)은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서울의 창조산업 성장에 따른 공간분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창조산업의 집적화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Geoda를 사용하여 공간통계분석 방법 중 하나인 Moran's I를 적용하였다.

정경석·문태헌·정재희·허선영(2009)은 마산시의 범죄 발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범죄발생의 영향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밀도분석 및 핫스팟(hotspot)분석과 공간회귀모델링 등의 공간통계분석을 통해 지역 범죄 발생 패턴 및 범죄율과 범죄 영향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구양미(2010)는 광고산업을 대상으로 공간적 집적과 그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Moran's I와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서울시 내에서 광고산업 세부 업종의 시기별, 공간별 집적의 차이를 탐색하였고, 이에 더하여 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의 광고물 제작 연계의 공간적 흐름을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해 분석함으로써 집적지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박소현·이금숙(2011)은 수도권 지역의 사교육 시설 분포에 나타나는 공간적 의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간통계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중 Moran's I 통계량을 이용하여 공간적 자기상관 여부를 판단하고, LISA 분석을 통해 공간적 군집을 파악하였다. 또한,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사교육 시설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속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손정렬(2011)은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도시용수 이용의 공간패턴을 파악하고 패턴변화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기법인 모란지수와 모란산포도, 로컬모란, 핫스팟지도 등을 이용하여 공간패턴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t-검정과 변화패턴 유형화를 통해 파악하였다.

[표 4] 공간통계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논문명
최현우・김계현・이철용 (2007)	해양환경 공간분포 패턴 분석을 위한 공간자기상관 적용 연구: 광양만을 사례 지역으로
이희연・황은정 (2008)	창조산업의 집적화와 가치사슬에 따른 분포특성: 서울을 사례로
정경석・문태헌・정재희・허선영 (2009)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시,공간적 도시범죄 패턴 및 범죄발생 영향요인 분석
구양미 (2010)	광고산업의 집적 특성과 광고제작의 공간적 네트워크
박소현・이금숙 (2011)	사교육 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 수도권 지역 사설학원을 중심으로
손정렬 (2011)	모란 및 국지모란지수를 이용한 도시용수 이용의 공간패턴과 그 변화 분석: 미국 남동부 카운티들을 대상으로

Ⅲ. 패션산업의 성장과 공간분포

앞서 살펴본 패션산업의 기본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패션산업의 성장과 공간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현황과 추이를 파악한 후, 2000년, 2005년, 2010년의 부문별·지역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부문별·지역별 패션산업의 상대적 특화도를 분석하기 위해 입지계수를 적용하여 수도권 패션산업의 분포 특징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패션산업의 성장

1) 전국 패션산업의 현황 및 추이

2000년 이후 최근 11년 동안(2000-2010)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성장을 추세를 보면 사업체 수 (-)3.7%, 종사자 수 (-)15.8%로 감소하였다. 부문별 패션산업의 성장 추세를 보기 위해 패션제조업과 패션판매업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패션제조업 부문에서 패션제조업체 수는 (-)24.9% 감소율을 나타냈고, 패션제조업 종사자 수 또한 무려 (-)38.8%의 큰 감소율을 나타내어 패션제조업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패션판매업체 수는 1.9%, 패션판매업 종사자 수는 7.9% 증가했다. 패션판매업이 양(+)의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션제조업의 음(-)의 성장률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의 성장은 11년 동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고).

[표 5]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성장 (2000-2010)

	증가율(%)		사업체(개)		종사자(명)	
	사업체	종사자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패션산업	-3.7	-15.8	184,571	177,793	570,448	480,051
패션판매업	1.9	7.9	150,096	152,933	283,973	306,420
패션제조업	-24.9	-38.8	38,475	28,880	290,475	177,651

자료: 통계청, 2000, 201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또한,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성장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03년 패션산업의 매출액은 약 3조이고, 2006년에는 보다 증가하여 약 4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09년에는 패션산업의 매출액이 약 6조로 나타나 2003이후 7년 동안(2003-2009) 패션산업의 매출액이 무려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2003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도에서 매출액이 양(+)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패션산업의 성장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한 것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는 패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매출액 추이 (2003-2009)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포털, 2003-2009, 산업별통계

2010년 패션산업의 수도권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전국 차원에서 [표 6]과 같이 시도별 패션산업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비중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경기도가 15.8%, 부산광역시가 8.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6위)는 3.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종사자 수 기준으로 시도별 패션산업의 비중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44.8%의 비중으로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15.5%)가 2위를 차지하였고, 1위와 2위의 차이가 종사자 수로 약 14만 명의 큰 차이를 보여 서울특별시가 패션산업의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뒤로 부산광역시(9.9%), 대구광역시(4.5%), 인천광역시(3.4%)가 각각 3, 4, 5위를 차지했다.

상위 5개 지역의 비중이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는 70%,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약 7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패션산업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해온 도시형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점유율이 패션산업체 비중 54.2%, 패션산업 종사자 비중 63.7%로 무려 약 50~60% 정도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전국 시도별 패션산업 점유율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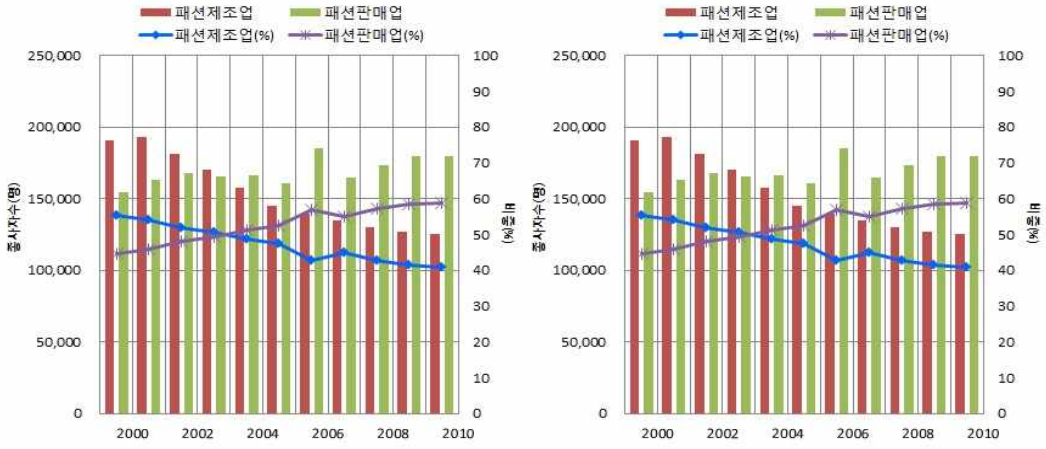
순위	지역	사업체 비중(%)	지역	종사자 비중(%)
1	**서울특별시**	**34.5**	**서울특별시**	**44.8**
2	**경기도**	**15.8**	**경기도**	**15.5**
3	부산광역시	8.9	부산광역시	9.9
4	대구광역시	5.7	대구광역시	4.5
5	경상남도	5.0	**인천광역시**	**3.4**
6	**인천광역시**	**3.9**	경상남도	3.4
7	경상북도	3.9	전라북도	3.1
8	전라북도	3.3	경상북도	2.5
9	전라남도	2.8	충청남도	2.0
10	충청남도	2.8	대전광역시	1.9
11	광주광역시	2.7	광주광역시	1.9
12	강원도	2.6	충청북도	1.8
13	충청북도	2.5	전라남도	1.7
14	대전광역시	2.5	강원도	1.7
15	울산광역시	1.8	울산광역시	1.2
16	제주특별자치도	1.2	제주특별자치도	0.7
합 계		100	-	100

자료: 통계청, 201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 수도권 패션산업의 현황 및 추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패션제조업과 패션판매업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수도권 패션산업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패션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측면에서 모두 2000년 이후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패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6〉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한 그래프를 보면 2000년에는 패션제조업의 비중이 패션판매업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패션제조업의 비중이 패션판매업 보다 작아지기 시작하여 2010년에

들어서는 그 차이가 점점 커져 종사자 수로 약 5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션제조업의 성장 추이는 1980년대 이후 국내 의류 제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와 같은 해외로 생산 기반을 이전하여 온 것이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패션판매업은 2000년 이후 11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패션제조업과 패션판매업은 상반된 성장 추이를 나타냈다.



<그림 6> 수도권 패션산업의 성장 추이 (2000-2010)

(좌) 사업체 수, (우) 종사자 수

자료: 통계청, 2000-201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 부문별·지역별 패션산업의 공간분포

1) 패션제조업의 공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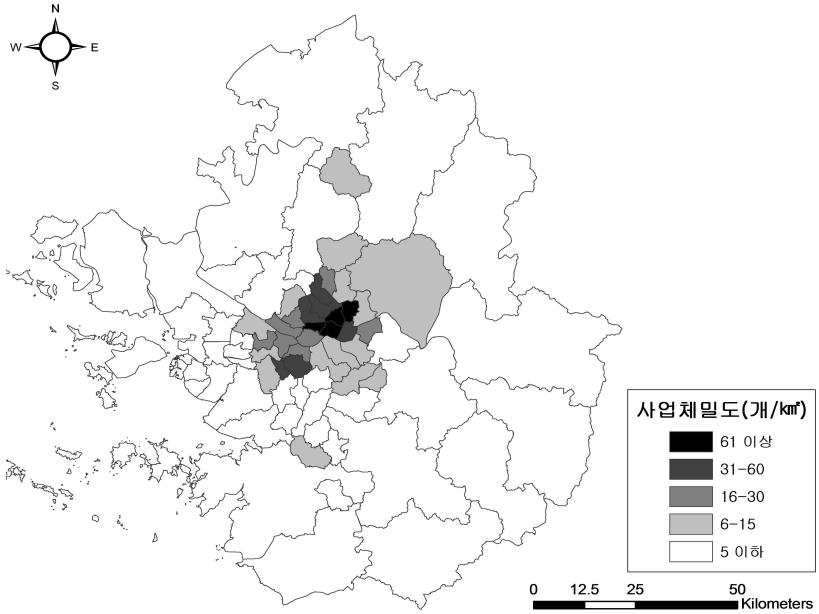
2000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제조업체 수는 23,165개로 서울 17,635개, 경기 4,486개, 인천 1,044개이다. 이 중 수도권 패션제조업체 수의 76.1%가 서울에 분포한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의 패션제조업 종사자 수는 190,773명이고, 서울 139,065명, 경기 41,781명, 인천 9,927명으로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무려 72.9%가 서울 지역에 분포한다.

[표 7]과 같이 사업체밀도를 기준으로 2000년 수도권 패션제조업의 지역별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중구가 166개/㎢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동대문구(99개/㎢), 중랑구(97개/㎢), 성동구(70개/㎢), 종로구(57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밀도를 기준으로 수도권 패션제조업의 지역별 공간분포를 보면 1위는 금천구(1019명/㎢), 2위는 서울 중구(994명/㎢)가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랑구(696명/㎢), 동대문구(657명/㎢), 성동구(617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제조업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패션 아울렛이 위치한 금천구 지역과 동대문 시장 인근 자치구인 중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종로구에 밀집되어 있다(〈그림 7〉과 〈그림 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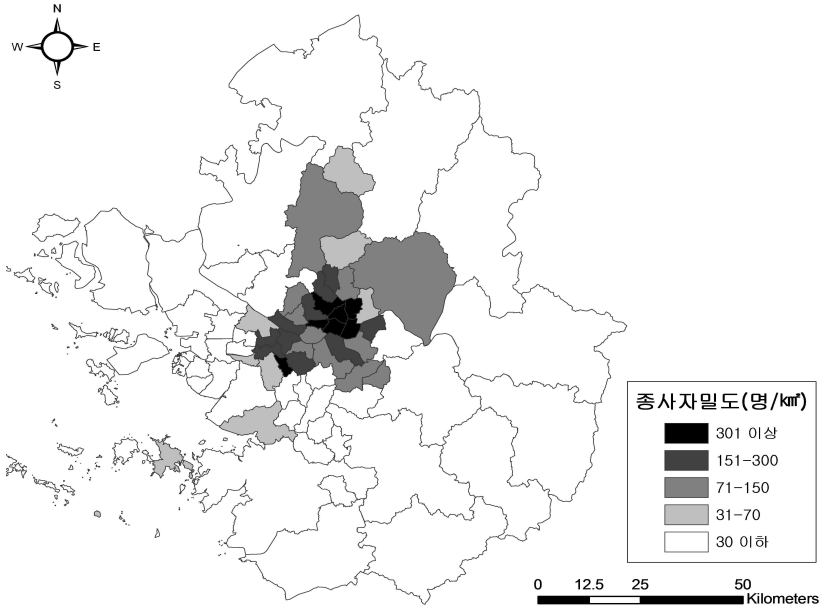
[표 7] 수도권 패션제조업 상위 5위 지역 (2000)

구분	사업체		종사자	
순위	지역	개/㎢	지역	명/㎢
1	중구	166	금천구	1019
2	동대문구	99	중구	994
3	중랑구	97	중랑구	696
4	성동구	70	동대문구	657
5	종로구	57	성동구	617

자료: 통계청, 200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림 7> 수도권 패션제조업체의 공간분포 (2000)



<그림 8>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공간분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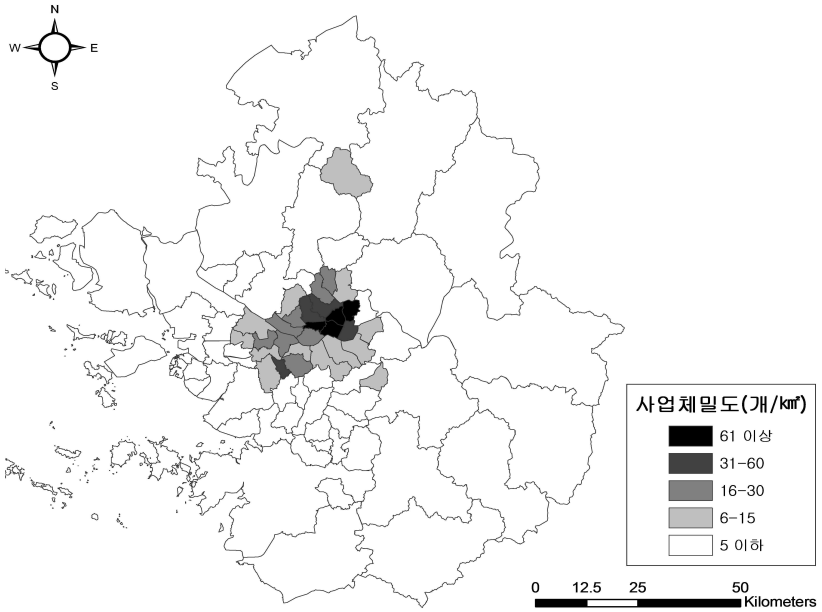
2005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제조업체 수는 19,320개이고, 이 중 서울 지역에 15,036개가 분포하여 전체의 77.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경기 지역에 3,431개, 인천 지역에 853개의 패션제조업체가 분포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패션제조업 종사자 수는 144,766명이고, 서울 110,937명, 경기 27,531명, 인천 6,298명이다. 이 중 서울 지역의 패션제조업 종사자 수는 수도권 지역의 76.6%를 차지한다. 2000년에 비해 2005년 들어 수도권 지역 내 서울 지역의 점유율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밀도를 기준으로 2005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패션제조업의 지역별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중구가 패션제조업체 149개/㎢로 2000년과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동대문구(80개/㎢)가 2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중랑구와 성동구(71개/㎢), 종로구(54개/㎢)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밀도를 기준으로도 역시 서울 중구가 74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위는 금천구(677명/㎢)가 차지하였다. 그 뒤로 성동구(573명/㎢), 동대문구(544명/㎢), 중랑구(462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참고). 2005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제조업 또한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인접해있는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종로구와 금천구에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와 〈그림 1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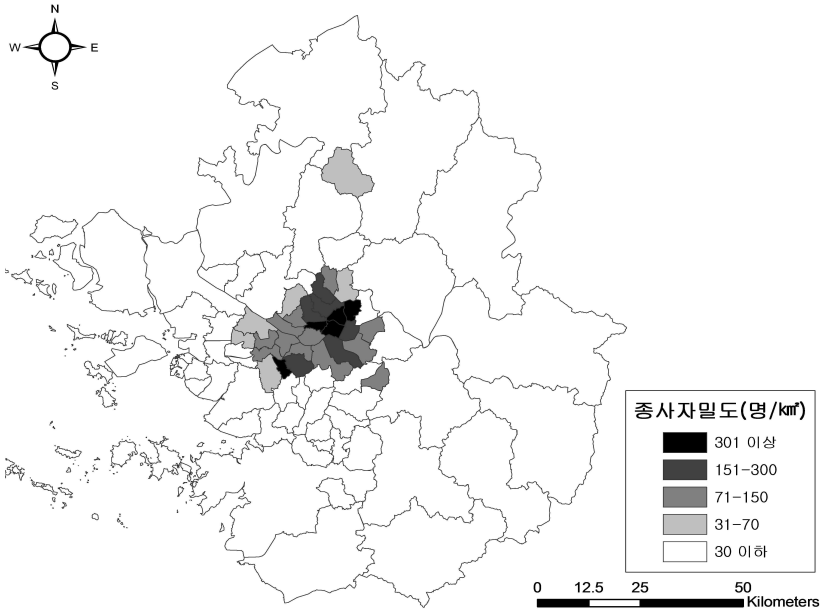
[표 8] 수도권 패션제조업 상위 5위 지역 (2005)

구분	사업체		종사자	
순위	지역	개/㎢	지역	명/㎢
1	중구	149	중구	744
2	동대문구	80	금천구	677
3	중랑구	71	성동구	573
4	성동구	71	동대문구	544
5	종로구	54	중랑구	462

자료: 통계청, 2005,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림 9> 수도권 패션제조업체의 공간분포 (2005)



<그림 10>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공간분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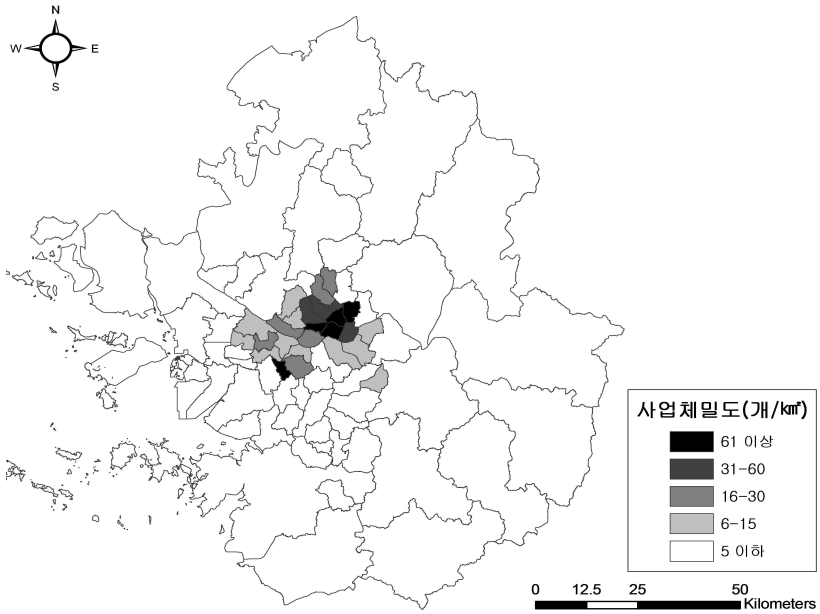
2010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제조업체 수는 17,837개로 서울 13,951개, 경기 3,167개, 인천 719개이고, 이 중 78.2%가 서울 지역에 분포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패션제조업 종사자 수는 125,284명이고, 서울 96,105명, 경기 24,154명, 인천 5,025명으로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76.7%가 서울 지역에 분포한다. 2000년과 비교하여 2010년의 수도권 대비 서울 지역의 패션제조업 점유율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 각각 2.1%, 3.8% 증가하였고, 이는 서울 지역에 패션제조업의 집중화가 심화되었음을 시사해준다.

[표 9]와 같이 사업체밀도를 기준으로 2010년 수도권 패션제조업의 지역별 공간분포를 보면 서울 중구(106개/㎢)가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중랑구(91개/㎢)가 2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성동구(71개/㎢), 동대문구(70개/㎢), 금천구(64개/㎢)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밀도를 기준으로 금천구가 753명/㎢으로 가장 1위를 차지하였는데, 금천구는 가산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조성 될 당시인 1964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봉제, 섬유, 의류제조업 등이 주를 이루었고, IT 업종 중심으로 입주 업종이 재편되었지만 현재에도 금천구의 지역 산업으로 의류, 패션, 디자인의 집적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육성해오고 있다. 2위는 성동구(535명/㎢)가 차지하였고, 그 뒤로 중구(493명/㎢), 중랑구(492명/㎢), 동대문구(400명/㎢)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1>과 <그림 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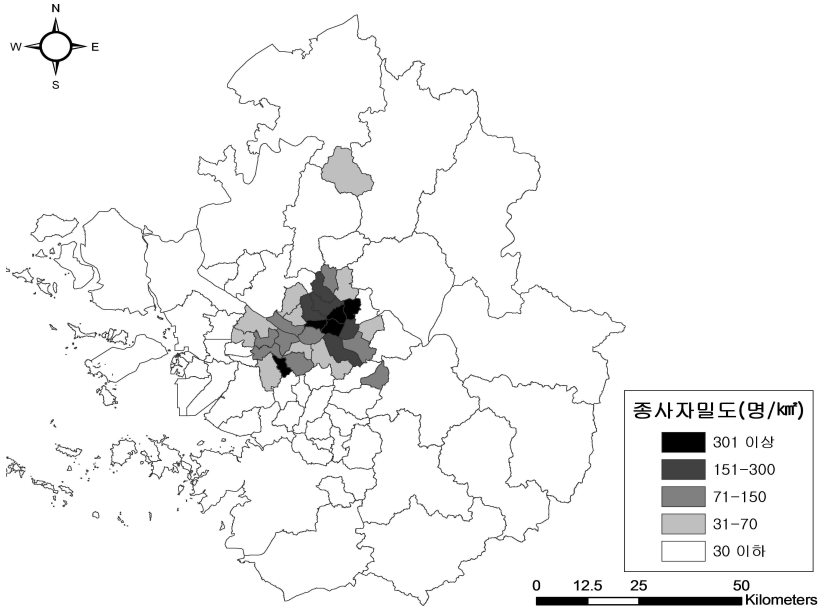
[표 9] 수도권 패션제조업 상위 5위 지역 (2010)

구분	사업체		종사자	
순위	지역	개/㎢	지역	명/㎢
1	중구	106	금천구	753
2	중랑구	91	성동구	535
3	성동구	71	중구	493
4	동대문구	70	중랑구	492
5	금천구	64	동대문구	400

자료: 통계청, 201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림 11> 수도권 패션제조업체의 공간분포 (2010)



<그림 12>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공간분포 (2010)

사업체밀도와 종사자밀도를 기준으로 2000년, 2005년, 2010년의 수도권 지역의 패션제조업의 공간분포를 종합해보면 상위 지역들 사이에 순위 변동만 미미하게 나타났을 뿐 3개 연도 간 전반적으로 유사한 분포 양상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2000년, 2005년, 2010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제조업의 공간분포는 대체적으로 동대문 시장 인근 자치구인 서울 중구, 중랑구, 성동구, 동대문구, 종로구와 금천구 지역에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패션판매업의 공간분포

2000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판매업체 수는 72,334개로 서울 47,315개, 경기 19,345개, 인천 5,674개다. 이 중 수도권 패션판매업체 수의 65.4%가 서울 지역에 분포한다.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의 패션판매업 종사자 수는 154,578명이고, 서울 109,264명, 경기 35,639명, 인천 9,675명으로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70.7%가 서울 지역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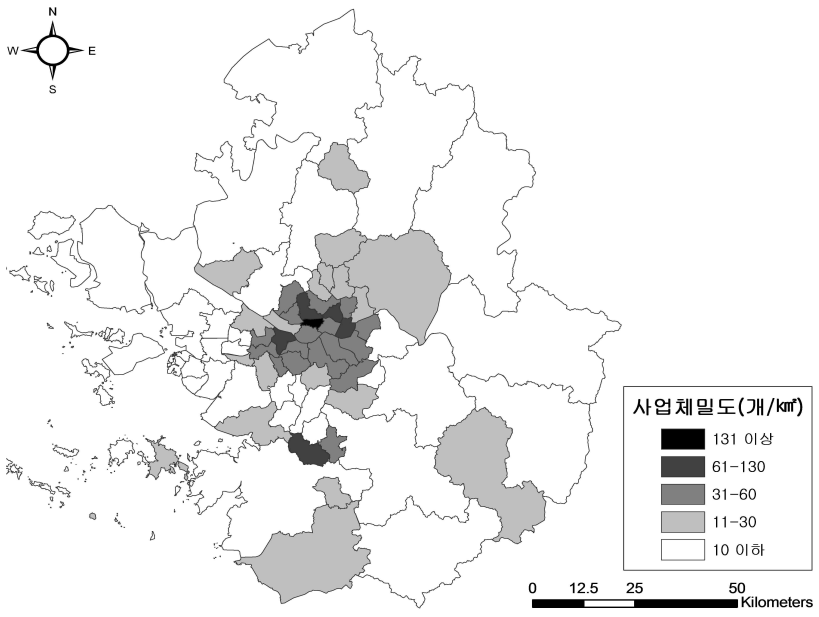
[표 10]과 같이 사업체밀도를 기준으로 2000년 패션판매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중구가 2117개/㎢로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구는 패션판매업체가 127개/㎢ 분포해있는 2위 종로구 보다 약 17배 많고 수치로는 무려 약 2,000개/㎢가 많아 중구가 패션판매업체 밀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79개/㎢), 동대문구(73개/㎢), 수원시 권선구(70개/㎢)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밀도를 기준으로 패션판매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중구가 4,24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밀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구는 2위 강남구(373명/㎢)와 약 11배 차이나고, 수치로는 약 3,90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중구가 패션판매업 부문에서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냈다. 강남구는 사업체밀도를 기준으로는 상

위 8위(55개/㎢)를 차지했지만, 종사자밀도를 기준으로 2위(373명/㎢)를 차지한 것은 강남구의 패션판매업체의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대부분 대규모 형태로 입지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 뒤로 종로구(230명/㎢), 영등포구(194명/㎢), 동대문구(182명/㎢)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3>과 <그림 1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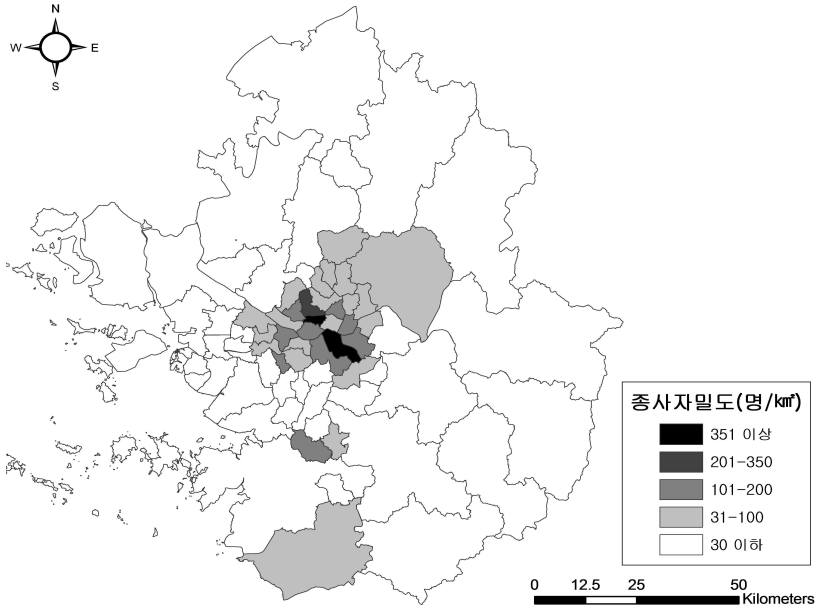
[표 10] 수도권 패션판매업 상위 5위 지역 (2000)

구분	사업체		종사자	
순위	지역	개/㎢	지역	명/㎢
1	중구	2117	중구	4243
2	종로구	127	강남구	373
3	영등포구	79	종로구	230
4	동대문구	73	영등포구	194
5	수원시 권선구	70	동대문구	182

자료: 통계청, 200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림 13> 수도권 패션판매업체의 공간분포 (2000)



<그림 14> 수도권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공간분포 (2000)

2005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판매업체 수는 73,022개로 서울 46,590개, 경기 21,149개, 인천 5,283개이다. 이 중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3.8%이다.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의 패션판매업 종사자 수는 160,479명이고, 서울 108,543명, 경기도 42,156명, 인천 지역에 9,780명으로 수도권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약 67.6%가 서울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판매업 또한 서울 지역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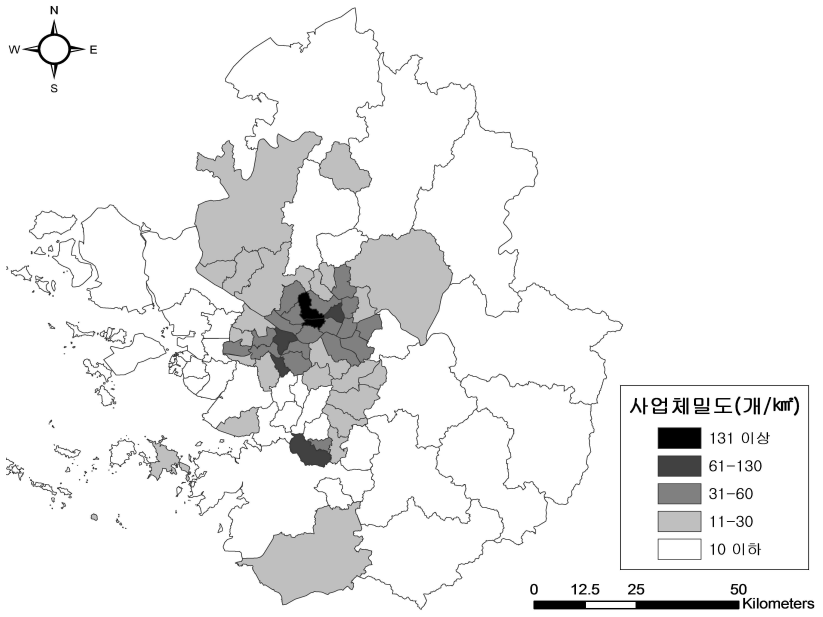
[표 11]과 같이 사업체밀도를 기준으로 2005년 수도권 패션판매업의 지역별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중구가 2088개/㎢로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종로구(151개/㎢)로 나타났고, 1위 중구와 2위 종로구의 패션판매업체 수가 약 14배가량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중구에 상당히 많은 패션판매업체가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수원시 권선구(80개/㎢), 영등포구(78개/㎢), 동대문구(7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사자밀도를 기준으로 수도권 패션판매업의 지역별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중구가 패션판매업

종사자 수 4,156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2위 종로구(309명/㎢)와는 약 13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사업체밀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가 패션판매업 부문에서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뒤로 강남구(288명/㎢), 금천구(219명/㎢), 영등포구(195명/㎢)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5>와 <그림 1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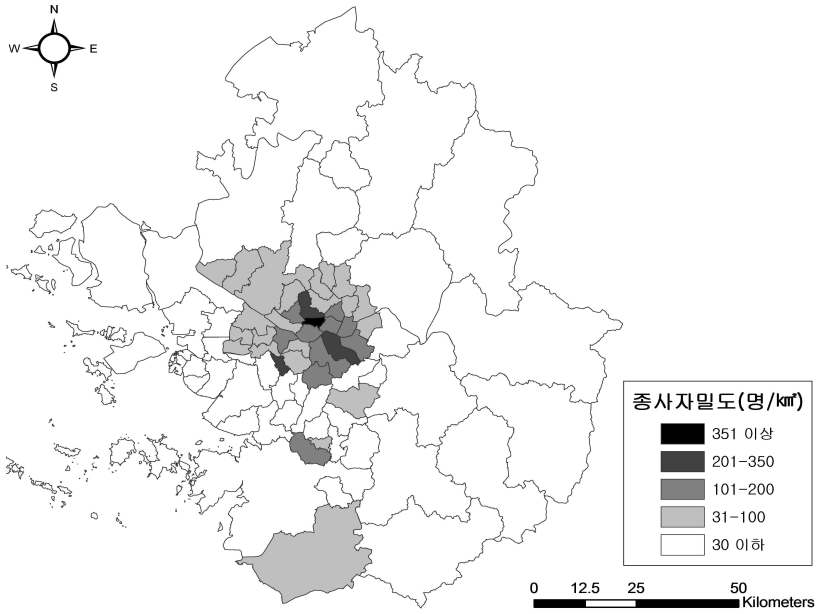
[표 11] 수도권 패션판매업 상위 5위 지역 (2005)

구분	사업체		종사자	
순위	지역	개/㎢	지역	명/㎢
1	중구	2088	중구	4156
2	종로구	151	종로구	309
3	수원시 권선구	80	강남구	288
4	영등포구	78	금천구	219
5	동대문구	70	영등포구	195

자료: 통계청, 2005,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림 15> 수도권 패션판매업체의 공간분포 (2005)



<그림 16> 수도권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공간분포 (2005)

2010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판매업체 수는 78,545개로 서울 47,420개, 경기 24,844개, 인천 6,281개이다. 이 중 서울 지역이 수도권 패션판매업체 수의 60.4%를 차지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패션판매업 종사자 수는 180,150명이고, 서울 118,810명, 경기 50,175명, 인천 11,165명으로 수도권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66.0%가 서울 지역에 분포한다. 2000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대비 서울 지역의 패션판매업 점유율은 2010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 각각 5.0%, 4.7% 감소했다. 이는 서울 지역 패션판매업의 성장 자체가 둔화되었다기보다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패션판매업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의 패션판매업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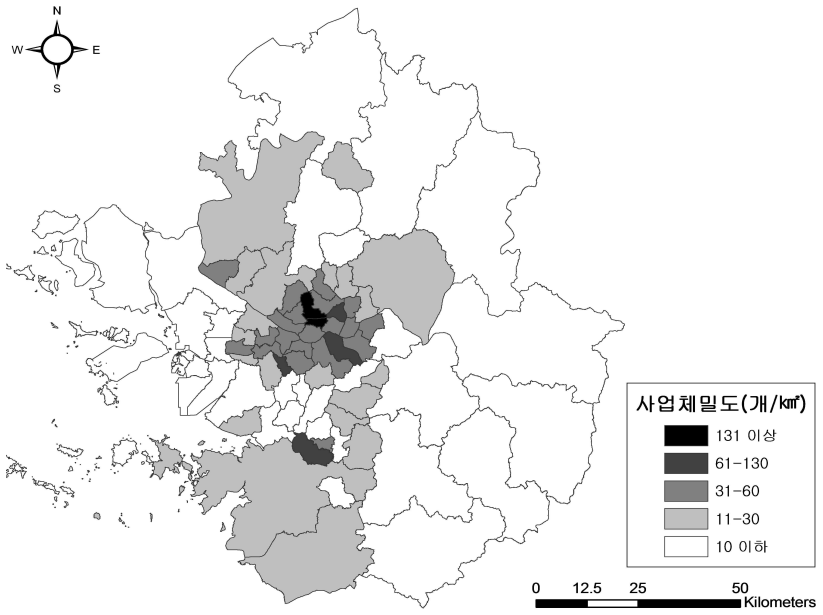
[표 12]와 같이 사업체밀도를 기준으로 2010년 수도권 패션판매업의 지역별 공간분포를 보면 서울 중구가 1907개/㎢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구는 2위를 차지한 종로구(153개/㎢)보다 12배, 수치로는 무려 약 1,800개 많다. 그 뒤로 금천구(85개/㎢), 동대문구(84개/㎢), 수원시 권선구(73개/㎢) 순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종사자밀도를 기준으로 수도권 패션판매업의 지역별 공간분포를 보면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가 3,966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강남구가 패션판매업 종사자 429명/㎢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종로구(287명/㎢)와 금천구(287명/㎢), 동대문구(198명/㎢)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7〉과 〈그림 1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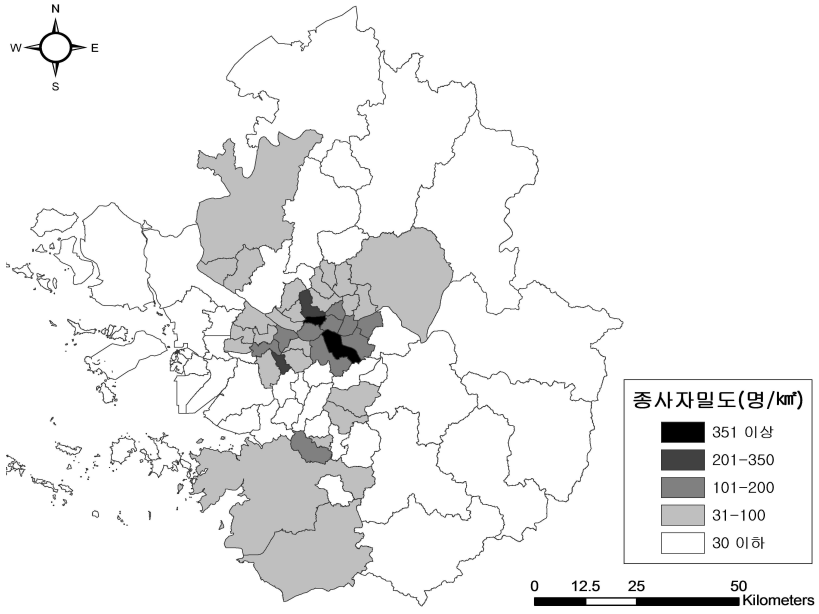
[표 12] 수도권 패션판매업 상위 5위 지역 (2010)

구분	사업체		종사자	
순위	지역	개/㎢	지역	명/㎢
1	중구	1907	중구	3966
2	종로구	153	강남구	429
3	금천구	85	종로구	287
4	동대문구	84	금천구	287
5	수원시 권선구	73	동대문구	198

자료: 통계청, 201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림 17> 패션판매업체의 공간분포 (2010)



<그림 18>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공간분포 (2010)

2000년부터 2005년, 2010년까지 3개 연도의 수도권 패션판매업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사업체밀도와 종사자밀도 기준으로 모두 서울 중구에 패션판매업의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구 지역에 의류 도매 및 소매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을지로 일대와 더불어 명동, 회현동, 신당동 등이 속해 있으며, 패션의 메카라 불리는 동대문 패션 타운, 명동 패션의 거리, 남대문 시장 등이 입지해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업체밀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차 순위 지역은 중구 인근에 위치한 종로구가 차지하였고, 종사자밀도 기준으로는 대규모 브랜드 의류업체가 밀집한 강남구 지역이 강세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수도권 대부분 지역들의 패션판매업 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패션제조업과 패션판매업의 공간분포 특징 : 입지계수(LQ)

본 절에서는 수도권 패션산업의 공간분포의 지역별 특화도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즉,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패션산업이 동일산업에 대해 수도권 내 특정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를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패션산업의 공간분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패션산업 특화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LQ)는 〈식 1〉[3]과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 산출 될 수 있다.

$$LQ_i = \frac{X_i / X}{Y_i / Y} = \frac{\text{수도권대비 } i\text{지역의 패션산업 사업체 수(또는 종사자 수) 비율}}{\text{수도권대비 } i\text{지역의 전체산업 사업체 수(또는 종사자 수) 비율}}$$

〈식 1〉

여기서 LQ_i는 i지역의 입지계수(패션산업의 특화도), Y는 수도권 지역 전체산업의 사업체 수(또는 종사자 수), Y_i는 i지역 전체산업의 사업체 수(또는 종사자 수), X는 수도권 지역 패션산업의 사업체 수(또는 종사자 수), X_i는 i지역 패션산업의 사업체 수(또는 종사자 수)를 말한다. $LQ_i > 1$일 때 i지역의 패션산업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고, $LQ_i = 1$일 때 i지역의 패션산업은 수도권 수준과 동일한 특화도를 갖고 있으며, $LQ_i < 1$일 때 i지역의 패션산업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3) 국토연구원, 2004, 공간분석기법, 한울아카데미, p.29의 입지계수 공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 지역과 산업에 맞게 입지계수 산출 식을 재구성함.

3.1 패션제조업 부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패션제조업의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특화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사업체 수를 적용하여 입지계수를 산출한 결과 패션제조업체 입지계수가 1.0을 초과하는 지역은 총 26개이고, 이 중 21개가 서울 지역으로 나타나 패션제조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서울 전역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입지계수가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중랑구(3.6), 강북구(3.3), 성북구(3.2)로 이 3개 지역들에 패션제조업체가 매우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지역 중 패션제조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은 서울 이외의 지역은 동두천시(2.6), 수원시 중원구(2.4), 수원시 수정구(2.2), 의정부시(1.5), 구리시(1.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의 2005년 패션제조업체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특화수준을 살펴본 결과 입지계수가 1.0을 초과하는 지역은 총 28개이고, 이 중 23개가 서울 지역에 해당된다. 서울 시군구 지역이 총 25개인 점을 고려할 때, 패션제조업체가 서울 전역(구로구, 영등포구만 제외)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입지계수가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중랑구(4.1), 성북구(4.0), 강북구(3.6), 도봉구(3.5), 관악구(3.2), 광진구(3.1), 동두천시(3.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지역 중 패션제조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은 서울 이외의 지역은 동두천시(3.1), 성남시 수정구(2.0), 성남시 중원구(2.0), 의정부시(1.6), 구리시(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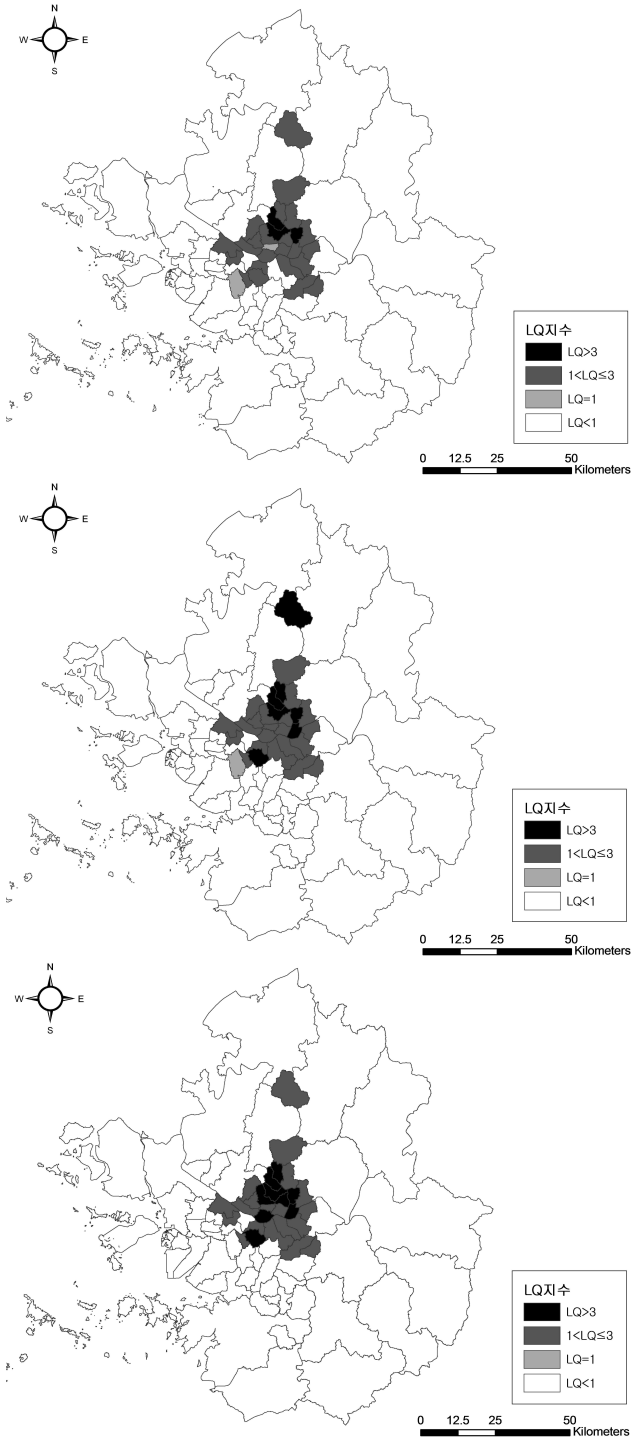
2010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제조업체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특화수준을 살펴보면 입지계수가 1.0을 초과하는 지역은 총 28개이고, 이 중 서울 지역은 23개로 나타나 2005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전역에 패션제조업체의 특화도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패션제조업체 입지계수 값이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중랑구(5.1), 성북구(4.7), 강북구(4.3), 도봉구(4.2), 용산구(4.0), 관악구(3.7), 광진구(3.5), 동대문구(3.4), 종로구(3.2) 순으로 나

타났다. 이 중 패션제조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2000년, 2005년과 마찬가지로 중랑구가 차지하였는데, 중랑구의 입지계수는 3.6(2000년)〈4.1(2005년)〈5.1(2010년)로 패션제조업체의 입지계수 값이 점점 증가하였다. 이러한 입지계수 값의 상향 추세는 중랑구와 더불어 패션제조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은 지역들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아 2000년에서 2010년으로 올수록 패션제조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보다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중 패션제조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은 서울 이외의 지역은 동두천시(2.5), 수원시 중원구(2.2), 의정부시(1.8), 수원시 중원구(1.7), 구리시(1.3)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13]과 같이 2000년, 2005년, 2010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제조업체의 특화도를 종합해보면, 패션제조업체 입지계수가 3.0을 초과하는 지역의 개수가 3개(2000년)〈7개(2005년)〈9개(2010년)로 점점 증가하였고, 패션제조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은 지역들의 입지계수 값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지역은 3개 연도 모두 패션제조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구분되었고, 반면에 영등포구와 구로구는 3개 연도 모두 서울 지역 중 유일하게 패션제조업체가 전혀 특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19〉는 2000년, 2005년, 2010년 수도권 패션제조업체의 지역별 입지계수 값을 지도화 한 것이다.

[표 13] 수도권 패션제조업체 입지계수(LQ)의 지역 구분

연도 (합계)	$LQ > 3$	개	$1 < LQ \leq 3$	개
2000년 (26개)	중랑구(3.6), 강북구(3.3), 성북구(3.2)	3	도봉구(2.9), 관악구(2.9), 동두천시(2.6), 동대문구(2.4), 성남시 중원구(2.4), 용산구(2.3), 광진구(2.2), 성남시 수정구(2.2), 노원구(2.1), 서대문구(2.0), 종로구(1.9), 동작구(1.9), 양천구(1.8), 은평구(1.7), 강동구(1.7), 마포구(1.6), 의정부시(1.5), 성동구(1.4), 강남구(1.3), 송파구(1.3), 구리시(1.3), 강서구(1.2), 금천구(1.2)	23
2005년 (28개)	중랑구(4.1), 성북구(4.0), 강북구(3.6), 도봉구(3.5), 관악구(3.2), 광진구(3.1), 동두천시(3.1)	7	동대문구(3.0), 용산구(2.9), 종로구(2.5), 서대문구(2.5), 성동구(2.0), 마포구(2.0), 양천구(2.0), 동작구(2.0), 강남구(2.0), 성남시 수정구(2.0), 성남시 중원구(2.0), 노원구(1.9), 은평구(1.7), 송파구(1.7), 강동구(1.6), 의정부시(1.6), 강서구(1.5), 금천구(1.4), 구리시(1.3), 중구(서울)(1.2), 서초구(1.2)	21
2010년 (28개)	중랑구(5.1), 성북구(4.7), 강북구(4.3), 도봉구(4.2), 용산구(4.0), 관악구(3.7), 광진구(3.5), 동대문구(3.4), 종로구(3.2)	9	강남구(3.0), 마포구(2.9), 성동구(2.6), 서대문구(2.5), 동두천시(2.5), 양천구(2.4), 동작구(2.2), 성남시 수정구(2.2), 은평구(2.0), 강동구(2.0), 노원구(1.9), 송파구(1.9), 강서구(1.8), 서초구(1.8), 의정부시(1.8), 금천구(1.7), 성남시 중원구(1.7), 구리시(1.3), 서울 중구(1.1)	19



<그림 19> 패션제조업체의 입지계수(LQ) 분포
(2000, 2005, 2010)

종사자수를 적용하여 2000년 수도권 패션제조업의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특화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패션제조업 종사자 입지계수가 1.0을 초과하는 지역은 총 32개이고, 이 중 22개가 서울 지역으로 나타나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서울 전역에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입지계수 값이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강북구(5.6), 중랑구(5.5), 관악구(5.4), 성북구(5.2), 도봉구(4.6), 동대문구(4.0), 노원구(4.0), 광진구(3.4), 양천구(3.3), 강동구(3.2), 의정부시(3.2), 은평구(3.1), 성남시 수정구(3.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지역 중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은 서울 이외의 지역은 의정부시(3.2), 성남시 수정구(3.1), 동두천시(2.4), 성남시 중원구(2.1), 구리시(1.9), 광주군(1.3), 의왕시(1.2), 고양시 덕양구(1.1), 인천 중구(1.1), 연수구(1.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5년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특화수준을 살펴보면 입지계수가 1.0을 초과하는 지역은 32개이고, 이 중 24개가 서울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영등포구를 제외한 모든 서울 지역에 패션제조업 종사자가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입지계수 값이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중랑구(7.1), 성북구(6.9), 강북구(6.4), 관악구(5.9), 동대문구(5.2), 광진구(5.1), 도봉구(4.9), 은평구(4.4), 성남시 수정구(4.2), 강동구(4.2), 노원구(4.0), 서대문구(3.5), 양천구(3.5), 송파구(3.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지역 중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은 서울 이외의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4.2), 동두천시(2.9), 의정부시(2.9), 구리시(1.9), 성남시 중원구(1.8), 안양시 만안구(1.3), 계양구(1.2), 부천시 소사구(1.1)로 전반적으로 2000년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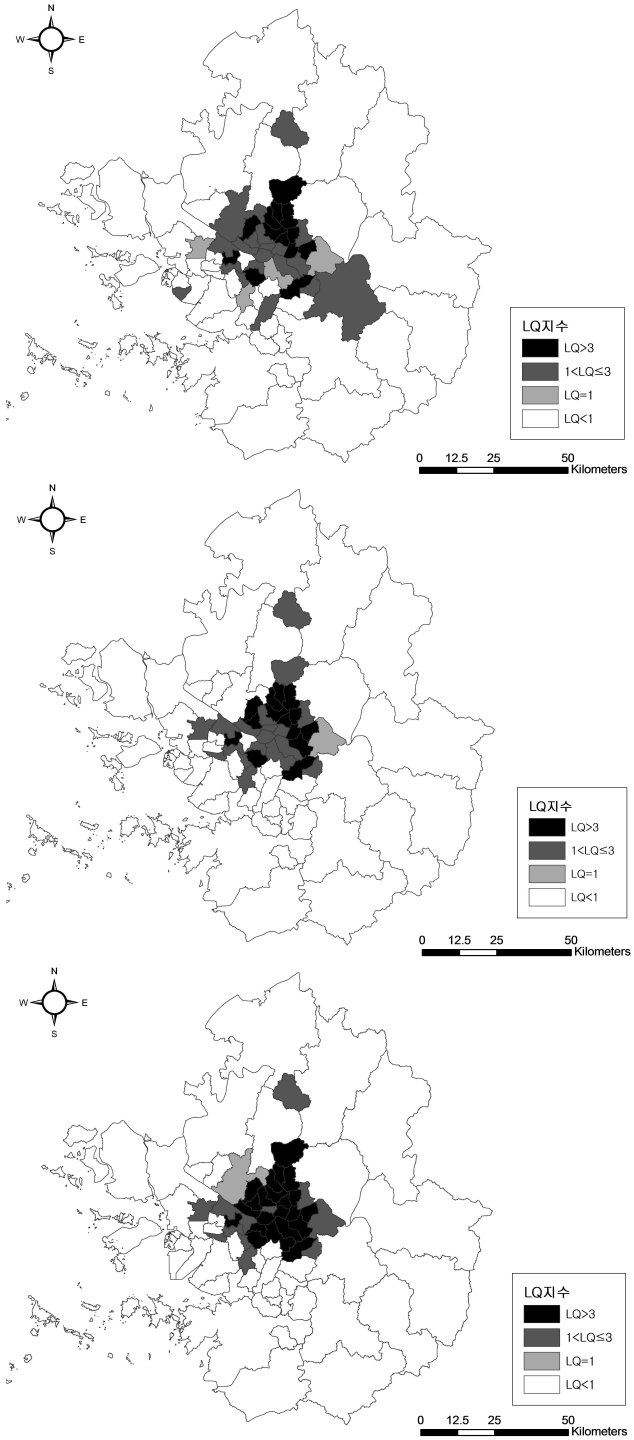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2010년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특화수준을 살펴본 결과 입지계수가 1.0을 초과하는 지역은 총 34개이고, 이 중 서울 지역은 25개로 서울 전체 지역에(서울 시군구 25개) 패션제조업 종사자가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 특화수준이 매우 높은 패션

제조업 종사자 입지계수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중랑구(8.2), 관악구(8.0), 성북구(7.9), 강북구(7.9), 강남구(6.7), 도봉구(6.5), 동대문구(6.2), 광진구(5.9), 마포구(5.7), 용산구(5.5), 서대문구(5.3), 송파구(5.1), 종로구(5.0), 성남시 수정구(5.0), 양천구(4.8), 은평구(4.8), 동작구(4.5), 서초구(4.4), 노원구(4.3), 강동구(3.9), 성동구(3.8), 의정부시(3.2)로 무려 22개의 지역이 이에 해당되고 대부분 서울 지역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 중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은 서울 이외의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5.0), 의정부시(3.2), 동두천시(2.5), 성남시 수정구(2.2), 의정부시(1.8), 성남시 중원구(1.7), 구리시(1.3)로 나타났다.

[표 14]와 같이 2000년, 2005년, 2010년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특화도를 정리해보면 패션제조업 종사자 입지계수가 3.0을 초과하는 지역의 개수는 13개(2000년)〈14개(2005년)〈22개(2010년)로 증가하였고, 이 중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0년으로 올수록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서울 전역에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점점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개 연도의 입지계수 값이 가장 높은 지역과 그의 입지계수 값은 각각 강북구(5.6), 중랑구(7.1), 중랑구(8.2)로 나타났고, 이들 지역과 더불어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은 지역들의 입지계수 값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수를 적용했을 때 보다 종사자 수를 적용했을 때 패션제조업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고,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는 패션제조업체와 패션제조업 종사자 두 부문 모두에서 상대적 특화수준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그림 20〉은 2000년, 2005년, 2010년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지역별 입지계수 값을 지도화 한 것이다.

[표 14] 수도권 패션제조업 종사자 입지계수(LQ)의 지역 구분

연도 (합계)	$LQ > 3$	개	$1 < LQ \leq 3$	개
2000년 (32개)	강북구(5.6), 중랑구(5.5), 관악구(5.4), 성북구(5.2), 도봉구(4.6), 동대문구(4.0), 노원구(4.0), 광진구(3.4), 양천구(3.3), 강동구(3.2), 의정부시(3.2), 은평구(3.1), 성남시 수정구(3.1)	13	동두천시(2.4), 서대문구(2.3), 성동구(2.2), 금천구(2.1), 성남시 중원구(2.1), 구리시(1.9), 마포구(1.8), 송파구(1.8), 동작구(1.6), 강서구(1.6), 종로구(1.4), 용산구(1.4), 강남구(1.3), 광주군(1.3), 의왕시(1.2), 구로구(1.1), 고양시 덕양구(1.1), 인천 중구(1.1), 연수구(1.1)	19
2005년 (32개)	중랑구(7.1), 성북구(6.9), 강북구(6.4), 관악구(5.9), 동대문구(5.2), 광진구(5.1), 도봉구(4.9), 은평구(4.4), 성남시수정구(4.2), 강동구(4.2), 노원구(4.0), 서대문구(3.5), 양천구(3.5), 송파구(3.5)	14	성동구(3.0), 동두천시(2.9), 의정부시(2.9), 강남구(2.6), 용산구(2.2), 동작구(2.1), 금천구(2.1), 종로구(2.0), 마포구(2.0), 구리시(1.9), 성남시 중원구(1.8), 강서구(1.8), 서초구(1.7), 중구(서울)(1.5), 안양시 만안구(1.3), 계양구(1.2), 부천시 소사구(1.1)	18
2010년 (34개)	중랑구(8.2), 관악구(8.0), 성북구(7.9), 강북구(7.9), 강남구(6.7), 도봉구(6.5), 동대문구(6.2), 광진구(5.9), 마포구(5.7), 용산구(5.5), 서대문구(5.3), 송파구(5.1), 종로구(5.0), 성남시 수정구(5.0), 양천구(4.8), 은평구(4.8), 동작구(4.5), 서초구(4.4), 노원구(4.3), 강동구(3.9), 성동구(3.8), 의정부시(3.2)	22	강남구(3.0), 마포구(2.9), 성동구(2.6), 서대문구(2.5), 동두천시(2.5), 양천구(2.4), 동작구(2.2), 성남시 수정구(2.2), 은평구(2.0), 강동구(2.0), 노원구(1.9), 송파구(1.9), 강서구(1.8), 서초구(1.8), 의정부시(1.8), 금천구(1.7), 성남시 중원구(1.7), 구리시(1.3), 서울 중구(1.1)	12



<그림 20> 패션제조업 종사자의 입지계수(LQ) 분포 (2000, 2005, 2010)

3.2 패션판매업 부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패션판매업의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특화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사업체 수를 적용하여 2000년 수도권 패션판매업의 입지계수를 산출한 결과 패션판매업체 입지계수가 1.0을 초과하는 지역은 총 10개이고, 이 중 패션판매업체 입지계수 값이 2.0을 넘는 지역은 서울 중구가 입지계수 값 3.2로 1위를 차지하였다. 서울 중구 이외에 패션판매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은 지역은 부천시 원미구(1.6), 과천시(1.3), 인천 중구(1.3), 의정부시(1.2), 안양시 동안구(1.2), 동두천시(1.2), 서대문구(1.1), 성남시 수정구(1.1), 평택시(1.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5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판매업체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특화수준을 살펴보면 입지계수가 1.0을 초과하는 지역은 5개이고, 이 중 입지계수 값이 2.0를 초과하는 지역은 단연 서울 중구(2.8)로 나타났다. 그 뒤로 용인시 수지구(1.3), 노원구(1.2), 과천시(1.2), 고양시 일산서구(1.1)에 패션판매업체가 상대적으로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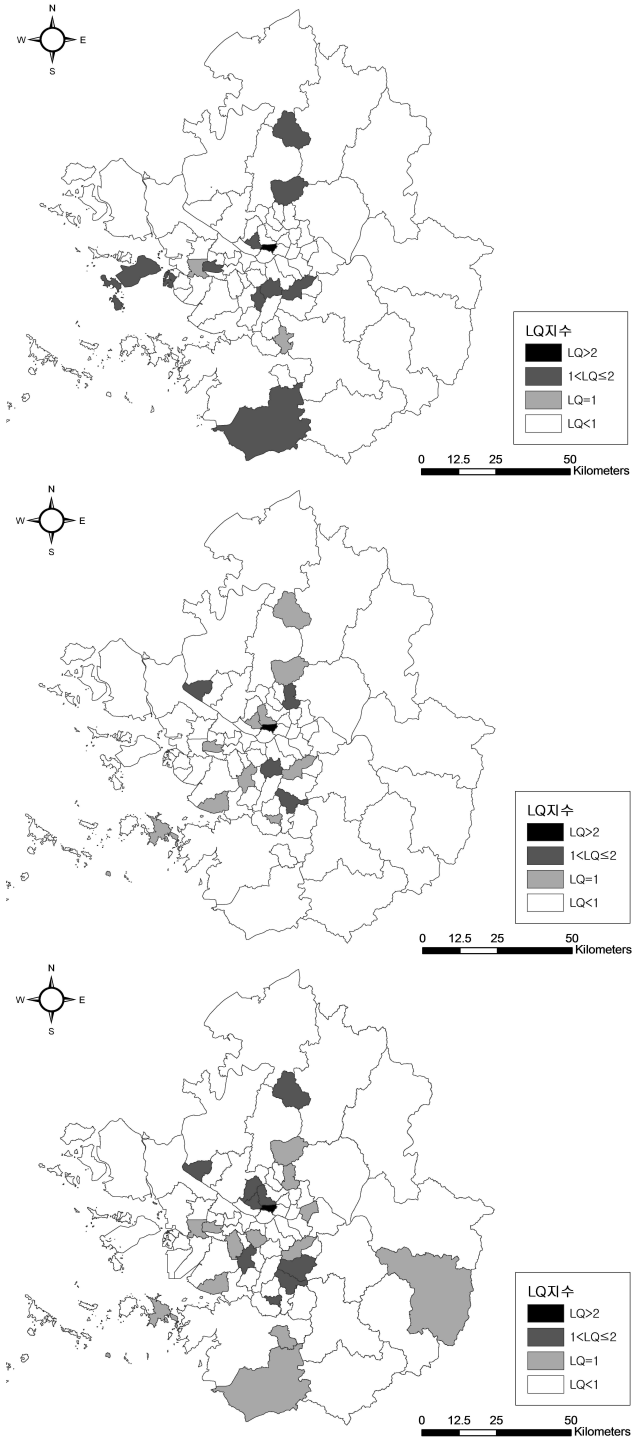
2010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판매업체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특화수준을 살펴보면 입지계수 값이 1.0을 초과하는 지역은 총 10개이고, 이 중 입지계수 값이 2.0을 초과하는 지역은 2000년, 2005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3.2)가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패션판매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은 지역은 용인시 수지구(1.3), 수원시 팔달구(1.2), 성남시 분당구(1.2), 안양시 만안구(1.2), 고양시 일산서구(1.2), 종로구(1.1), 은평구(1.1), 서대문구(1.1), 동두천시(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와 같이 2000년, 2005년, 2010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판매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을 정리해보면 3개 연도 모두 서울 중구의 패션판매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중구 이외의 지역에도 패션판매업체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지역들

의 입지계수 값은 1.0 초반대로 그 값이 매우 작고, 산출된 값이 패션판매업체의 특화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입지계수 산출 식에 의해 단순히 1.0을 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 지역들에 패션판매업체가 특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21〉은 2000년, 2005년, 2010년 수도권 패션판매업체의 지역별 입지계수 값을 지도화 한 것이다.

[표 15] 수도권 패션판매업체 입지계수(LQ)의 지역 구분

연도 (합계)	$LQ > 2$	개	$1 < LQ \leq 2$	개
2000년 (10개)	서울 중구(3.2)	1	부천시 원미구(1.6), 과천시(1.3), 인천 중구(1.3), 의정부시(1.2), 안양시 동안구(1.2), 동두천시(1.2), 서대문구(1.1), 성남시 수정구(1.1), 평택시(1.1)	9
2005년 (5개)	서울 중구(2.8)	1	용인시 수지구(1.3), 노원구(1.2), 과천시(1.2), 고양시 일산서구(1.1)	4
2010년 (10개)	서울 중구(3.2)	1	용인시 수지구(1.3), 수원시 팔달구(1.2), 성남시 분당구(1.2), 안양시 만안구(1.2), 고양시 일산서구(1.2), 종로구(1.1), 은평구(1.1), 서대문구(1.1), 동두천시(1.1)	9



<그림 21> 패션판매업체의 입지계수(LQ) 분포
(2000, 2005, 2010)

종사자 수를 적용하여 2000년 수도권 패션판매업의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특화수준을 살펴본 결과 패션판매업 종사자 입지계수가 1.0을 넘는 지역은 총 11개이다. 특히, 이 중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입지계수 값이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서울 중구 지역이 유일하고, 그 입지계수 값은 3.4로 가장 높은 특화수준을 나타냈다. 서울 중구 이외에 패션제조업 종사자 부문에서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부천시 원미구(1.7), 중구(인천)(1.5), 안양시 동안구(1.4), 성남시 수정구(1.3), 동두천시(1.3), 의정부시(1.2), 평택시(1.2), 여주군(1.2), 서대문구(1.1), 부평구(1.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5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판매업 종사자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상대적 특화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입지계수가 1.0을 초과하는 지역은 총 8개이고, 이 중 입지계수 값이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단연 서울 중구(3.3)로 나타났다. 그 뒤로 과천시(2.5), 용인시 수지구(1.3), 노원구(1.2), 종로구(1.2), 안양시 만안구(1.2), 고양시 일산서구(1.1), 안산시 단원구(1.1)에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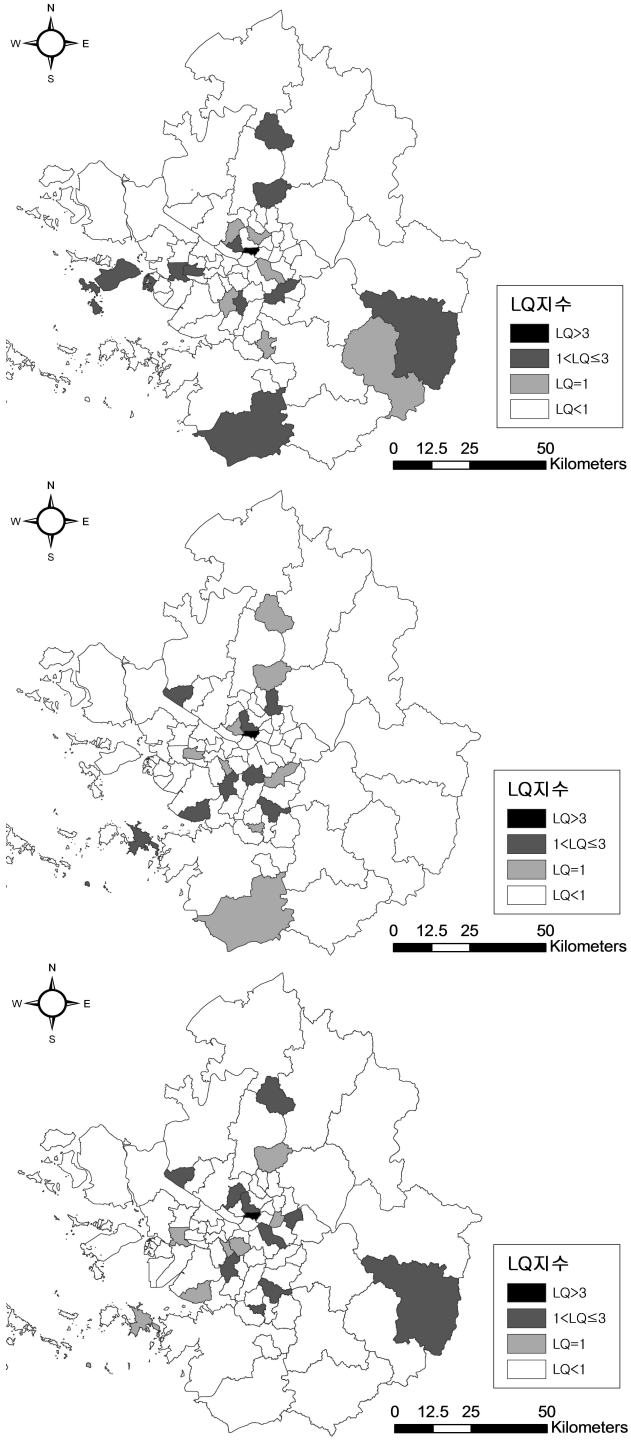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2010년 수도권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특화수준을 살펴보면 입지계수 값이 1.0을 초과하는 지역은 총 11개이고, 이 중 입지계수 값이 3.0을 넘는 지역은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3.5)에 패션판매업 종사자가 가장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상대적 특화수준이 높은 지역은 여주시(1.6), 강동구(1.4), 안양시 만안구(1.4), 용인시 수지구(1.3), 종로구(1.2), 수원시 팔달구(1.2), 은평구(1.1), 강남구(1.1), 고양시 일산서구(1.1), 동두천시(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과 같이 2000년, 2005년, 2010년 수도권 지역의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상대적 특화수준을 종합해보면 3개 연도 모두 서울 중구의 특화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중구 이외의 몇몇 지역에도 상대적으로 패션판매업 종사자가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지역들의 입지계수 값은 1.0 초반대로 매우 작고, 산출된 값이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상대적 특화수준

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입지계수 산출 식에 의해 단순히 1.0을 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서울 중구 이외의 지역들에 패션판매업 종사자가 특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2〉는 2000년, 2005년, 2010년 수도권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지역별 입지계수 값을 지도화 한 것이다.

[표 16] 수도권 패션판매업 종사자 입지계수(LQ)의 지역 구분

연도 (합계)	$LQ > 3$	개	$1 < LQ \leq 3$	개
2000년 (11개)	서울 중구(3.4)	1	부천시 원미구(1.7), 중구(인천)(1.5), 안양시 동안구(1.4), 성남시 수정구(1.3), 동두천시(1.3), 의정부시(1.2), 평택시(1.2), 여주군(1.2), 서대문구(1.1), 부평구(1.1)	10
2005년 (8개)	서울 중구(3.3)	1	과천시(2.5), 용인시 수지구(1.3), 노원구(1.2), 종로구(1.2), 안양시 만안구(1.2), 고양시 일산서구(1.1), 안산시 단원구(1.1)	7
2010년 (11개)	서울 중구(3.5)	1	여주시(1.6), 강동구(1.4), 안양시 만안구(1.4), 용인시 수지구(1.3), 종로구(1.2), 수원시 팔달구(1.2), 은평구(1.1), 강남구(1.1), 고양시 일산서구(1.1), 동두천시(1.1)	10



<그림 22> 패션판매업 종사자의 입지계수(LQ) 분포 (2000, 2005, 2010)

Ⅳ.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 패턴 분석

앞서 살펴본 수도권 지역의 부문별·지역별 패션산업의 공간분포와 그 특징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Tobler의 지리학 제 1법칙에 기초하여 패션산업의 분포 패턴 및 공간적 군집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패션산업 중에서도 서울 전역에 높은 집중도와 뚜렷한 특화수준을 나타낸 패션제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7가지 직능별로 나누고, 각 직능의 분포 패턴과 공간적 군집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적 속성을 고려한 공간통계분석(Spatial Statistics Analysis)의 하나인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적용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앞서 살펴본 패션산업의 공간분포의 최근 시점인 2010년으로 통일하려고 했으나, 구득한 직능별 패션산업 자료의 가장 최근 시점을 고려하여 2009년으로 설정하였다. [표 17]은 패션산업의 7가지 직능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표 17] 패션산업의 7가지 직능별 분류

직종분류	설명
디자이너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와 모양의 의복과 액세서리를 포함한 제품을 디자인하는 자
패턴사	양복, 양장, 셔츠, 블라우스 및 기타 재료로 만들어지는 일체의 의류부품의 옷본을 도안, 재단하는 자를 말함. 경우에 따라서는 원형을 검사하기 위해 모형을 만들고 필요한 수정을 하거나 의복 디자인을 하기도 함
재단사	한 벌 또는 여러 벌의 옷감으로 의복을 제조하기 위해 패턴(본)을 놓고 옷감을 자르는 사람
미싱사(봉제사)	재단된 옷감을 재봉기를 이용하여 의류제품을 제작하는 사람
링킹사(사시사)	스웨터 및 편물제품의 봉제작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사람
생산관리자	섬유 및 의복공장 관리자(공장장), 생산 공정 관리자, 생산계획 관리자 등
기능종사원	아이롱사(시제품 다림질), 검사요원, 보조(시다) 등

출처: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종합지원센터 (2010)

1. 공간적 분포 패턴 분석 방법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이란 속성 값들이 공간상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혹은 객체(Object)나 대상물(Feature)의 상관관계가 지리적인 배치나 위치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ong, D. W. S. and Lee, J., 2005).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은 전역적 스케일(Global Scale)과 국지적 스케일(Local Scale)의 두 가지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다.

먼저 전역적 스케일의 공간패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모란지수(Moran's I)를 산출해야 한다. 모란지수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공간상에서 단일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 정도를 측정한다. 즉, 공간상에서 특정 현상의 분포패턴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무작위(Random) 질서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모란지수는 〈식 2〉와 같이 산출될 수 있다(Anselin, 1995; 손정렬, 2011 재인용).

$$I = \frac{n}{S_0^*} \frac{\sum_{i=1}^{n}\sum_{j=1}^{n} w_{ij}(x_i - \bar{x})(x_j - \bar{x})}{\sum_{i=1}^{n}(x_i - \bar{x})^2} \qquad \text{〈식 2〉}$$

$$S_0^* = \sum_{i=1}^{n}\sum_{j=1}^{n} w_{ij}$$

$\bar{x}$: 직능별 종사자 수의 평균

x_i : i지역의 직능별 종사자 수

x_j : j지역의 직능별 종사자 수

n: 지역(읍면동)의 총수

w_{ij} : 공간가중치행렬 내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해당하는 요소

모란지수 값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은 완전한 공간적 분산(Perfect Dispersion), 반대로 +1의 값은 완전한 집중(Perfect Clustering)을 나타낸다. 만일 공간적 자기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Anselin, *et al.*, 2004).

모란지수를 추정하기에 앞서 공간가중치행렬을 구성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으며 비교적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인접성 기반 방법과 거리 기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 기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중 실제거리의 역수를 이용하는 거리역수방법(Inverse Distance)을 사용하였다. 거리역수방법의 공간적 관계의 개념적 모델은 거리 조락(Distance Decay)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모든 대상물들이 다른 모든 대상물들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상물들 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그 영향력은 더 작아진다는 것이다.[4] 거리역수방법은 인위적으로 임계거리나 혹은 최근린 지역의 수를 설정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성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가중치행렬의 행렬 내 개별 값을 $W_{ij}/\sum jw_{ij}$와 같이 행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 이와 같이 행 표준화된 공간가중치행렬이 모란지수의 추정에 사용되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째, 모란지수의 계산이 매우 간단해진다. 둘째, 이러한 변환을 통해 얻어진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된 모란지수는 서로 다른 공간적 실체들 간에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손정렬, 2011).

다음으로 연구지역 내에서 공간적 패턴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지적(Local) 차원에서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확인해야 한다. 로컬모란지수를 이용한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지적 공간통계기법이며 산

4) ArcGIS Desktop 9.3 Help
http://webhelp.esri.com/arcgisdesktop/9.3/index.cfm?TopicName=Modeling%20spatial%20relationships&anchor=LMS-Link1

출하는 방식은 〈식 3〉과 같다.

$$I_i = (x_i - \overline{x}) \sum_{j=1}^{n} w_{ij}(x_j - \overline{x}) \qquad \text{〈식 3〉}$$

로컬모란지수는 특정한 관측치 i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며, 동일한 연구지역에 대하여 로컬모란지수 I_i의 평균값은 모란지수 I와 같다(Anselin, 1995; 손정렬 2011).

LISA에서 공간적 연관성은 HH(high-high), LL(low-low), HL(high-low), LH(low-high)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HH(high-high)는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가지며 속성 값이 높은 지역, 인접지역과 유사한 값들의 공간적 집적을 의미하고, LL(low-low)은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가지며 속성 값이 낮은 지역, 인접지역과 유사한 값들의 공간적 집적을 의미한다. HL(high-low)은 음(-)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가지고 속성 값이 높은 지역, 인접지역과 상이한 값들의 공간적 집적을, LH(Low-High)는 음(-)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가지고 속성 값이 낮은 지역, 인접지역과 상이한 값들의 공간적 집적을 의미한다([표 18] 참고).

[표 18] LISA 공간적 연관성의 4가지 유형

<table>
<tr><th>공간적 자기상관성
속성 값
(인접지역과의 유사성)</th><th colspan="2">음(-) · · · · · 0 · · · · · · 양(+)</th></tr>
<tr><td rowspan="2">높음 (매우 유사)
·
·
·
·
낮음 (매우 상이)</td><td>HL(High-Low)</td><td>HH(High-High)</td></tr>
<tr><td>LH(Low-High)</td><td>LL(Low-Low)</td></tr>
</table>

2. 직능별 패션산업의 전역적(Global)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2009년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7가지 직능별에 따른 패션산업 종사자들이 집중 또는 분산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전역적 차원의 공간적 자기상관도를 산출하였다.

[표 19]와 같이 7가지 직능별로 산출된 모란지수 값을 살펴보면 95%의 수준에서 모란지수 값 0.29로 미싱(봉제)사가 가장 높은 집적 수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재단사와 생산관리자의 모란지수 값이 두 직능 모두 0.26으로 집적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기능종사원(0.22), 패턴사(0.16), 링킹사(0.14) 순으로 나타났고, 디자이너는 모란지수 값이 0.12로 7가지 직능 중 집적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집적 수준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가지 직능 모두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가지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공간상에 집적(Clustering)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자기상관분석 결과 : 전역적 모란지수 (2009)

구분	Moran's I	Z score	결과
디자이너	0.12	5.84*	Clustered
패턴사	0.16	7.94*	Clustered
재단사	0.26	12.53*	Clustered
미싱사	0.29	13.80*	Clustered
링킹사	0.14	7.01*	Clustered
생산관리자	0.26	12.21*	Clustered
기능종사원	0.22	10.81*	Clustered

*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3. 직능별 패션산업의 국지적(Local)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LISA

LISA를 통해 산출된 개별 지역의 로컬모란지수 값을 이용하여 패션산업의 7가지 직능별 분포를 지도에 표현하게 되면 전역적 차원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국지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집적의 위치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LISA를 통해 산출된 로컬모란지수 값을 토대로 패션산업의 7가지 직능에 대한 군집지역의 유형을 구분하여 HH, HL, LH 지역을 추출하였고, Z(z-score)값과 P값(p-value)을 구하여 군집지역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7가지 직능에 대한 LISA 결과를 바탕으로 HH 군집이 형성되는 지역을 크게 강남일대, 종로-중구 도심일대, 중랑-성북일대, 중곡-장안일대, 구로-가산일대로 나누었으며, [표 20]과 같이 각 직능의 HH 군집 형성 지역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직능끼리 그룹화 하였다.

[표 20] HH 군집 형성에 따른 직능의 그룹화

구분	직능	지역	
그룹 1	디자이너 패턴사	강남일대	중곡-장안일대 구로-가산일대
그룹 2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	종로-중구 도심일대 중랑-성북일대	
그룹 3	링킹사 기능종사원	중랑-성북일대	

그룹 1에는 강남일대와 중곡-장안일대, 구로-가산일대에 중심으로 HH 군집을 형성하는 디자이너와 패턴사가 해당되며, 그룹 2는 종로-중구 도심일대와 중랑-성북일대 그리고 중곡-장안일대와 구로-가산일대에 HH 군집을 형

성하는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그룹 3에는 중곡-장안일대와 구로-가산일대에 HH 군집을 형성하는 링킹사와 기능종사원이 해당된다. 또한, 그룹 1, 2, 3의 7가지 직능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HH 군집 형성 지역은 모든 생산 공정을 통합·운영하는 패션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중곡-장안일대와 구로-가산일대로 나타났다.

LISA를 통해 그룹별 군집지역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룹 1의 디자이너의 경우 강남지역 11개동에서 모두 유의미한 HH 군집이 나타났고, 중곡-장안일대, 구로-가산 일부지역에 HH 군집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자이너의 HL 군집은 성수2가3동, 문래동, 길동 지역, LH 군집은 가리봉동에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1의 패턴사의 경우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주로 강남일대에 유의미한 HH 군집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곡-장안일대와 구로-가산 일부지역과 중랑구의 면목동과 상봉동 일부지역에도 유의미한 HH 군집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패턴사의 HL 군집은 문래동과 길동, LH 군집은 면목4동과 가리봉동에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산업에서도 특히 지식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능으로 간주되는 디자이너와 패턴사의 군집이 강남일대에 중점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영화제작업체나 광고산업의 강남 집적을 설명한 연구들(주성재, 2006; 구양미, 2010)에서처럼 강남지역이 지식과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적지이고, 생산연계에 있어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호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21]과 [표 22]는 디자이너와 패턴사의 LISA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디자이너와 패턴사의 공간적 군집 유형을 지도화 한 것이 〈그림 23〉과 〈그림 24〉이다.

[표 21] 디자이너의 LISA 결과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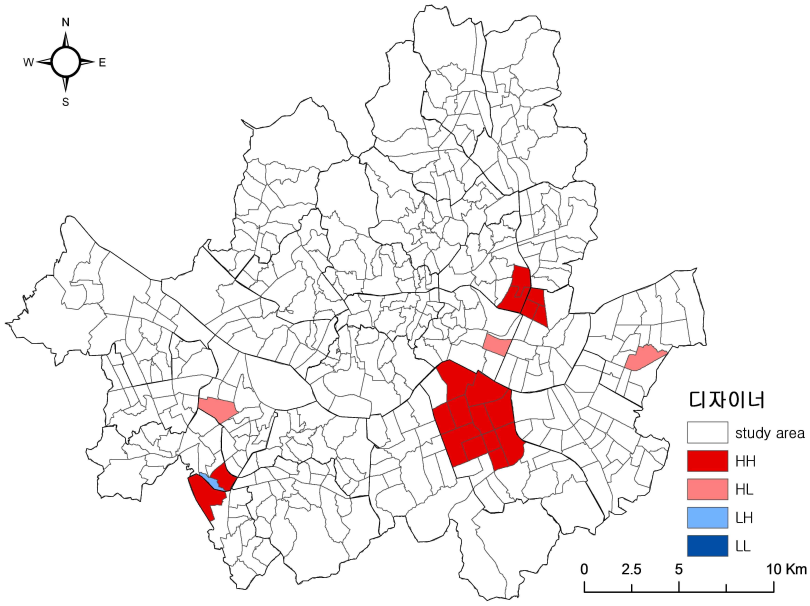
디자이너					
지역(구)	지역(동)	Moran'I	Z-score	P-value	Type
성동구	성수2가3동	-0.6641	-2.4366	0.0148	HL
광진구	중곡1동	2.0695	7.8679	0.0000	HH
	중곡2동	0.7027	2.6860	0.0072	HH
	중곡3동	1.5602	6.0937	0.0000	HH
동대문구	장안1동	1.4869	6.1791	0.0000	HH
	장안2동	1.5596	6.7676	0.0000	HH
구로구	구로3동	1.4655	6.0242	0.0000	HH
	가리봉동	-0.6713	-2.3859	0.0170	LH
금천구	가산동	4.0618	13.0995	0.0000	HH
영등포구	문래동	-1.4998	-6.0933	0.0000	HL
강남구	논현1동	1.3843	4.4383	0.0000	HH
	논현2동	3.0207	10.5765	0.0000	HH
	삼성1동	4.2738	14.5693	0.0000	HH
	삼성2동	4.0093	12.9626	0.0000	HH
	대치1동	2.5661	8.9881	0.0000	HH
	대치4동	0.7243	2.5264	0.0115	HH
	역삼1동	0.7844	2.7800	0.0054	HH
	역삼2동	3.4899	12.0577	0.0000	HH
	압구정동	0.7132	2.4369	0.0148	HH
	청담동	6.7832	20.0172	0.0000	HH
	대치2동	3.0447	11.0753	0.0000	HH
강동구	길동	-0.6172	-2.1486	0.0317	HL

위 통계량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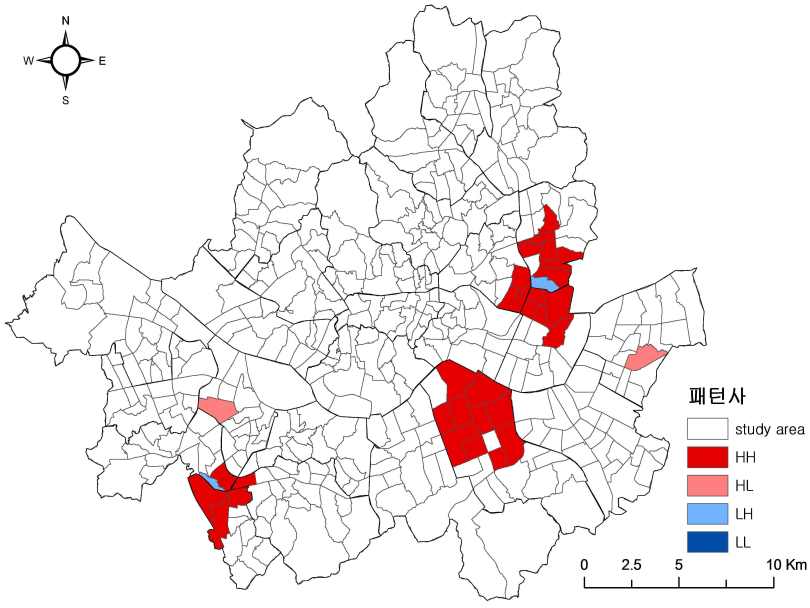
[표 22] 패턴사의 LISA 결과 (2009)

패턴사					
지역(구)	지역(동)	Moran' I	Z-score	P-value	Type
광진구	중곡1동	0.7126	2.7815	0.0054	HH
	중곡2동	1.5738	6.1509	0.0000	HH
	중곡3동	2.1484	8.5920	0.0000	HH
	중곡4동	0.7425	2.6879	0.0072	HH
	구의2동	0.7293	2.6319	0.0085	HH
동대문구	장안1동	1.0509	4.4763	0.0000	HH
	장안2동	0.9977	4.4379	0.0000	HH
중랑구	면목2동	1.2199	5.1104	0.0000	HH
	면목4동	-0.5559	-2.0705	0.0384	LH
	면목7동	0.8046	2.8183	0.0048	HH
	상봉1동	0.7333	2.7208	0.0065	HH
	상봉2동	1.4034	6.1476	0.0000	HH
	면목본동	3.8071	14.5374	0.0000	HH
	면목3·8동	0.9005	3.1272	0.0018	HH
구로구	구로3동	3.6386	15.3056	0.0000	HH
	가리봉동	-1.0181	-3.7118	0.0002	LH
금천구	가산동	10.2822	33.9671	0.0000	HH
	독산1동	6.9405	21.3002	0.0000	HH
	독산3동	0.7219	3.0579	0.0022	HH
영등포구	문래동	-1.1465	-4.7686	0.0000	HL
관악구	조원동	0.4323	1.9951	0.0460	HH
강남구	논현1동	1.2852	4.2226	0.0000	HH
	논현2동	2.8772	10.3218	0.0000	HH
	삼성1동	3.6099	12.6104	0.0000	HH
	삼성2동	5.4796	18.1508	0.0000	HH
	대치1동	0.7332	2.6372	0.0084	HH
	역삼1동	0.8904	3.2322	0.0012	HH
	역삼2동	0.7245	2.5713	0.0101	HH
	압구정동	0.6789	2.3773	0.0174	HH
	청담동	3.6839	11.1438	0.0000	HH
	대치2동	1.0872	4.0573	0.0000	HH
강동구	길동	-0.7021	-2.5055	0.0122	HL

위 통계량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그림 23> 디자이너의 핫스팟지도 (2009)



<그림 24> 패턴사의 핫스팟지도 (2009)

그룹 2의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의 군집지역은 종로-중구 도심일대, 중랑-성북일대, 중곡-장안일대, 구로-가산일대로 크게 4극체제 형성한다. 먼저, 가장 흡사한 군집지역 양상을 나타내는 재단사와 미싱사의 경우 종로-중구 도심일대에서도 특히 종로5·6가동과 창신동 일대, 중구의 회현동과 신당동 일대에 HH 군집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로-중구 도심일대의 동쪽에 위치한 중랑-성북일대 중 특히 면목동과 장위동 일대에 비교적 큰 규모의 유의미한 HH 군집이 나타났다. 더불어 모든 직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군집 지역인 중곡-장안일대와 구로-가산일대도 HH 군집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중곡-장안일대 인근 왕십리동과 구로-가산일대 주변지역인 관악에도 미미하지만 HH 군집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사의 LH 군집은 황학동, 이문2동, 가리봉동, 미싱사의 HL, LH 군집은 각각 길동과 가리봉동에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산관리자의 경우 재단사, 미싱사와 유사한 군집지역 양상을 나타냈으나 특징적인 것은 재단사와 미싱사에 비해 군집지역의 형성이 종로-중구 도심일대에서 서울의 중심지역으로 하나의 띠를 이루며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생산관리자의 HH 군집은 종로-중구 도심일대의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과 창신동 일대, 명동, 회현동, 신당동 일대에 형성되었고, 북아현동과 공덕동 까지 확장되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랑-성북일대, 중곡-장안일대, 그리고 구로-가산일대에도 유의미한 HH 군집이 나타났다. 생산관리자의 LH 군집은 가회동, 창신3동, 황학동, 가리봉동에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2의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의 HH 군집이 주로 종로-중구 도심일대와 중랑-성북일대에 형성되는 것은 패션판매업의 밀집과 특화도가 강하게 나타난 동대문 시장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생산 연계의 이점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3], [표 24], [표 25]는 각각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의 LISA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은 LISA 결과를 토대로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의 공간적 군집 유형을 지도화 한 것이다.

[표 23] 재단사의 LISA 결과 (2009)

재단사					
지역(구)	지역(동)	Moran' I	Z-score	P-value	Type
종로구	종로5·6가동	1.7119	8.1105	0.0000	HH
	창신1동	0.4939	2.3113	0.0208	HH
	창신2동	1.2932	5.8835	0.0000	HH
중구	회현동	0.4379	1.9620	0.0498	HH
	신당5동	0.8353	3.9832	0.0001	HH
	신당6동	2.0393	9.7737	0.0000	HH
	황학동	-0.4860	-2.4717	0.0134	LH
용산구	청파동	0.4605	1.9725	0.0486	HH
성동구	왕십리2동	1.0836	5.0782	0.0000	HH
	마장동	1.5147	6.7935	0.0000	HH
	왕십리도선동	2.0324	10.3857	0.0000	HH
광진구	중곡1동	0.7017	2.6197	0.0088	HH
	중곡2동	1.1468	4.2894	0.0000	HH
	중곡3동	2.5518	9.7603	0.0000	HH
	중곡4동	1.1283	3.9013	0.0001	HH
동대문구	용신동	2.4080	11.6820	0.0000	HH
	장안1동	2.0289	8.2592	0.0000	HH
	장안2동	2.0334	8.6446	0.0000	HH
	이문2동	-0.5069	-2.0153	0.0439	LH
중랑구	면목2동	3.2385	12.9638	0.0000	HH
	면목4동	1.9853	7.1098	0.0000	HH
	면목5동	2.3399	9.9825	0.0000	HH
	면목7동	2.7622	9.2320	0.0000	HH
	상봉2동	2.6066	10.9172	0.0000	HH
	중화2동	1.3103	5.1688	0.0000	HH
	묵2동	0.5035	1.9917	0.0464	HH
	면목본동	5.6666	20.6903	0.0000	HH
	면목3·8동	1.9762	6.5526	0.0000	HH
	망우본동	1.0793	3.0541	0.0023	HH

[표 23 계속] 재단사의 LISA 결과 (2009)

지역(구)	지역(동)	Moran's I	Z-score	P-value	Type
성북구	월곡2동	1.2114	5.0139	0.0000	HH
	장위1동	2.0665	7.9706	0.0000	HH
	장위2동	2.7534	10.4405	0.0000	HH
	장위3동	1.2843	4.7787	0.0000	HH
	석관동	1.8441	7.3253	0.0000	HH
구로구	구로3동	1.9115	7.6971	0.0000	HH
	가리봉동	-1.0465	-3.6488	0.0003	LH
금천구	가산동	8.3808	26.4700	0.0000	HH
	독산1동	9.6747	28.3789	0.0000	HH
	독산2동	1.6920	5.4571	0.0000	HH
	독산3동	4.5255	18.2899	0.0000	HH
	독산4동	1.5048	5.4707	0.0000	HH
	시흥1동	1.0008	2.8710	0.0041	HH
관악구	신사동	0.5013	2.2650	0.0235	HH
	조원동	1.8656	8.2068	0.0000	HH
	미성동	0.5938	2.5554	0.0106	HH

위 통계량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표 24] 미싱사의 LISA 결과 (2009)

미싱사					
지역(구)	지역(동)	Moran' I	Z-score	P-value	Type
종로구	종로5·6가동	1.2241	5.8589	0.0000	HH
	창신2동	1.1779	5.4123	0.0000	HH
중구	신당5동	0.5305	2.5585	0.0105	HH
	신당6동	1.0412	5.0440	0.0000	HH
성동구	왕십리2동	0.5061	2.4007	0.0164	HH
	마장동	0.4678	2.1262	0.0335	HH
	왕십리도선동	1.3749	7.0978	0.0000	HH
광진구	중곡1동	0.6484	2.4454	0.0145	HH
	중곡3동	1.7611	6.8053	0.0000	HH
동대문구	용신동	1.2725	6.2385	0.0000	HH
	장안1동	1.8783	7.7220	0.0000	HH
	장안2동	1.5810	6.7893	0.0000	HH
중랑구	면목2동	2.8894	11.6816	0.0000	HH
	면목4동	1.7965	6.4984	0.0000	HH
	면목5동	1.9570	8.4324	0.0000	HH
	면목7동	2.8128	9.4949	0.0000	HH
	상봉2동	2.5763	10.8963	0.0000	HH
	중화2동	1.2054	4.8030	0.0000	HH
	묵2동	0.6830	2.7252	0.0064	HH
	망우3동	0.9433	3.1027	0.0019	HH
	면목본동	4.6693	17.2197	0.0000	HH
	면목3·8동	1.6959	5.6805	0.0000	HH
	망우본동	1.2498	3.5709	0.0004	HH
성북구	월곡2동	1.0846	4.5341	0.0000	HH
	장위1동	1.6063	6.2589	0.0000	HH
	장위2동	2.3737	9.0912	0.0000	HH
	장위3동	0.8934	3.3598	0.0008	HH
	석관동	1.5403	6.1803	0.0000	HH
구로구	구로3동	2.6333	10.7043	0.0000	HH
	가리봉동	-1.3047	-4.5963	0.0000	LH
금천구	가산동	13.3312	42.5227	0.0000	HH
	독산1동	17.0193	50.4198	0.0000	HH
	독산2동	3.3188	10.8032	0.0000	HH
	독산3동	7.5388	30.7620	0.0000	HH

[표 24 계속] 미싱사의 LISA 결과 (2009)

지역(구)	지역(동)	Moran's I	Z-score	P-value	Type
금천구	독산4동	4.2094	15.4396	0.0000	HH
	시흥1동	2.9553	8.5496	0.0000	HH
관악구	난향동	0.8954	3.2115	0.0013	HH
	조원동	1.8401	8.1736	0.0000	HH
	미성동	0.6533	2.8380	0.0045	HH
강동구	길동	-1.2768	-4.4068	0.0000	HL

위 통계량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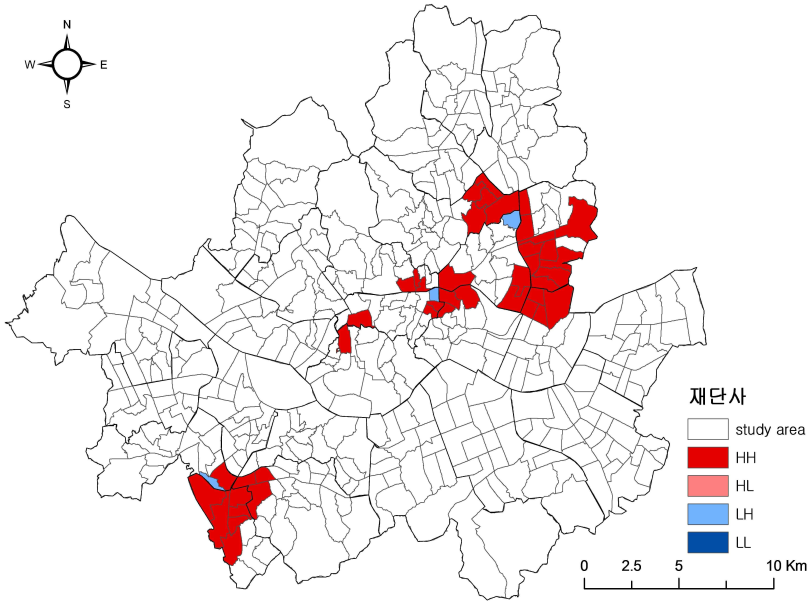
[표 25] 생산관리자의 LISA 결과 (2009)

생산관리자					
지역(구)	지역(동)	Moran' I	Z-score	P-value	Type
종로구	가회동	-0.5810	-2.0663	0.0388	LH
	종로1·2·3·4가동	3.6201	16.5890	0.0000	HH
	종로5·6가동	6.2070	29.3292	0.0000	HH
	창신1동	0.7876	3.6728	0.0002	HH
	창신2동	5.0111	22.7299	0.0000	HH
	창신3동	-0.6426	-2.7257	0.0064	LH
중구	회현동	1.7849	7.9527	0.0000	HH
	명동	1.4226	5.7835	0.0000	HH
	신당1동	0.7189	3.6590	0.0003	HH
	신당5동	0.8230	3.9187	0.0001	HH
	신당6동	1.1395	5.4576	0.0000	HH
	황학동	-0.5250	-2.6668	0.0077	LH
용산구	청파동	1.4023	5.9766	0.0000	HH
성동구	왕십리2동	0.7252	3.3969	0.0007	HH
	마장동	0.8292	3.7179	0.0002	HH
	왕십리도선동	1.9971	10.1891	0.0000	HH
광진구	중곡1동	0.8899	3.3146	0.0009	HH
	중곡2동	0.7025	2.6266	0.0086	HH
	중곡3동	2.0013	7.6437	0.0000	HH
	중곡4동	0.8086	2.7937	0.0052	HH
동대문구	용신동	2.0061	9.7184	0.0000	HH
	장안1동	2.3621	9.5980	0.0000	HH
	장안2동	2.2153	9.4016	0.0000	HH
중랑구	면목2동	2.1121	8.4442	0.0000	HH
	면목4동	1.5475	5.5345	0.0000	HH
	면목5동	1.5914	6.7815	0.0000	HH
	면목7동	2.3954	7.9937	0.0000	HH
	상봉2동	1.4182	5.9344	0.0000	HH
	중화2동	1.0389	4.0934	0.0000	HH
	망우3동	0.7752	2.5217	0.0117	HH
	면목본동	3.7651	13.7273	0.0000	HH
	면목3·8동	1.2450	4.1243	0.0000	HH
	망우본동	0.8386	2.3704	0.0178	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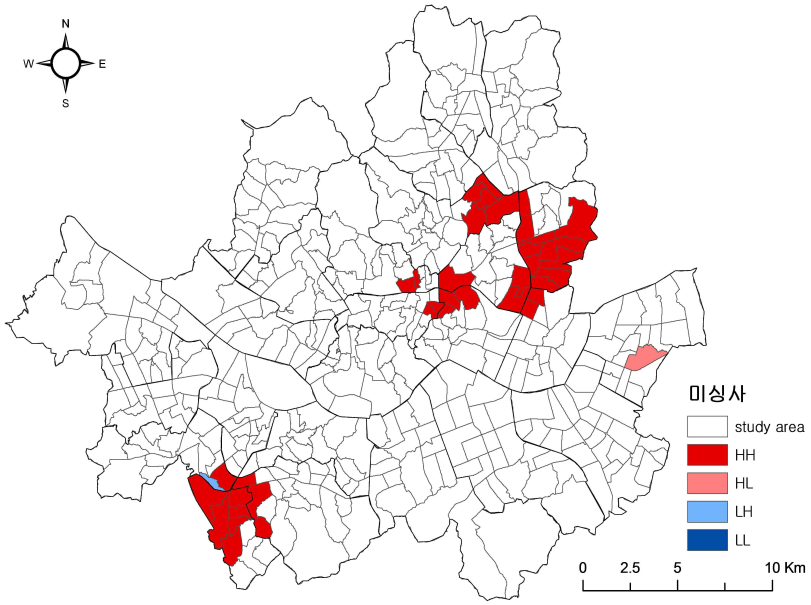
[표 25 계속] 생산관리자의 LISA 결과 (2009)

지역(구)	지역(동)	Moran's I	Z-score	P-value	Type
성북구	보문동	0.7536	3.3227	0.0009	HH
	월곡1동	0.6978	2.8470	0.0044	HH
	월곡2동	1.4513	5.9949	0.0000	HH
	장위1동	1.7798	6.8548	0.0000	HH
	장위2동	2.8073	10.6269	0.0000	HH
	장위3동	1.0022	3.7246	0.0002	HH
	종암동	0.5103	2.1638	0.0305	HH
	석관동	1.4904	5.9122	0.0000	HH
서대문구	북아현동	0.5179	1.9904	0.0465	HH
마포구	공덕동	1.1047	4.5504	0.0000	HH
구로구	구로3동	1.3878	5.5817	0.0000	HH
	가리봉동	-0.8640	-3.0061	0.0026	LH
금천구	가산동	4.4300	13.9719	0.0000	HH
	독산1동	4.6268	13.5528	0.0000	HH
	독산2동	0.7595	2.4497	0.0143	HH
	독산3동	2.5122	10.1406	0.0000	HH
	독산4동	1.1632	4.2235	0.0000	HH
관악구	조원동	0.9137	4.0181	0.0001	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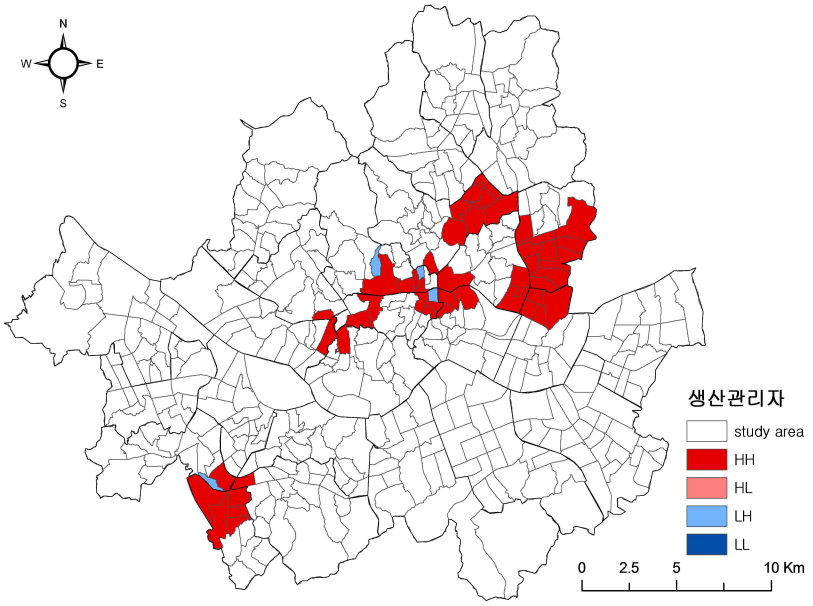
위 통계량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그림 25> 재단사의 핫스팟지도 (2009)



<그림 26> 미싱사의 핫스팟지도 (2009)



<그림 27> 생산관리자의 핫스팟지도 (2009)

마지막으로 그룹 3의 링킹사와 기능종사원의 경우 중랑-성북일대와 모든 직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곡-장안일대, 구로-가산일대에 유의미한 HH 군집이 나타났다. 먼저, 링킹사의 경우 중랑-성북일대 중 중랑구 면목동 전역에 HH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곡-장안일대와 구로-가산 일대에도 HH 군집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구로-가산일대와 인접한 관악구 일부 소수지역에도 유의미한 HH 군집이 나타났다. 링킹사의 HL 군집은 종로5·6가동과 등촌1동에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능종사원의 경우 중랑-성북일대 중 특히 면목동과 장위동 일대에 HH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로-가산일대에도 유의미한 HH 군집이 나타났다. 기능종사원의 HL, LH 군집은 각각 응암3동과 가리봉동에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과 [표 27]은 링킹사와 기능종사원의 LISA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그림 28〉과 〈그림 29〉는 LISA 결과를 토대로 링킹사와 기능종사원의 공간적 군집 유형을 지도화 한 것이다.

[표 26] 링킹사의 LISA 결과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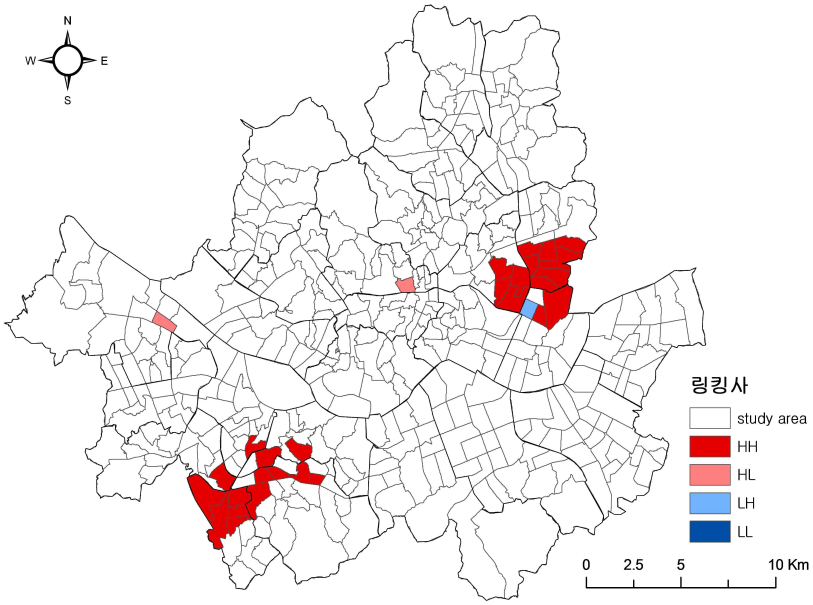
링킹사					
지역(구)	지역(동)	Moran' I	Z-score	P-value	Type
종로구	종로5·6가동	-0.5486	-2.6405	0.0083	HL
광진구	중곡1동	-0.7355	-2.7885	0.0053	LH
	중곡2동	1.9988	7.6352	0.0000	HH
	중곡4동	3.7293	13.1630	0.0000	HH
동대문구	전농2동	0.7296	2.9281	0.0034	HH
	답십리2동	0.5617	2.2383	0.0252	HH
	장안1동	7.7107	32.0520	0.0000	HH
	장안2동	8.7964	38.1821	0.0000	HH
중랑구	면목2동	0.9834	4.0303	0.0001	HH
	면목4동	0.6182	2.2693	0.0233	HH
	면목5동	0.4929	2.1569	0.0310	HH
	면목7동	1.5870	5.4261	0.0000	HH
	망우3동	1.6280	5.4144	0.0000	HH
	면목본동	0.7491	2.8034	0.0051	HH
	면목3·8동	1.4867	5.0416	0.0000	HH
강서구	등촌1동	-0.8655	-2.8778	0.0040	HL
구로구	구로3동	1.5075	6.2061	0.0000	HH
금천구	가산동	2.3596	7.6248	0.0000	HH
	독산1동	2.8666	8.6027	0.0000	HH
	독산2동	2.1492	7.0844	0.0000	HH
	독산3동	1.0421	4.3119	0.0000	HH
	독산4동	0.9055	3.3685	0.0008	HH
영등포구	신길6동	0.4579	2.1176	0.0342	HH
동작구	상도4동	0.5156	2.1975	0.0280	HH
	신대방2동	1.3725	6.7312	0.0000	HH
관악구	중앙동	0.6844	2.8985	0.0037	HH
	신사동	1.3613	6.2665	0.0000	HH
	신림동	0.5254	2.3390	0.0193	HH
	은천동	1.7131	7.1638	0.0000	HH
	미성동	1.2624	5.5401	0.0000	HH

위 통계량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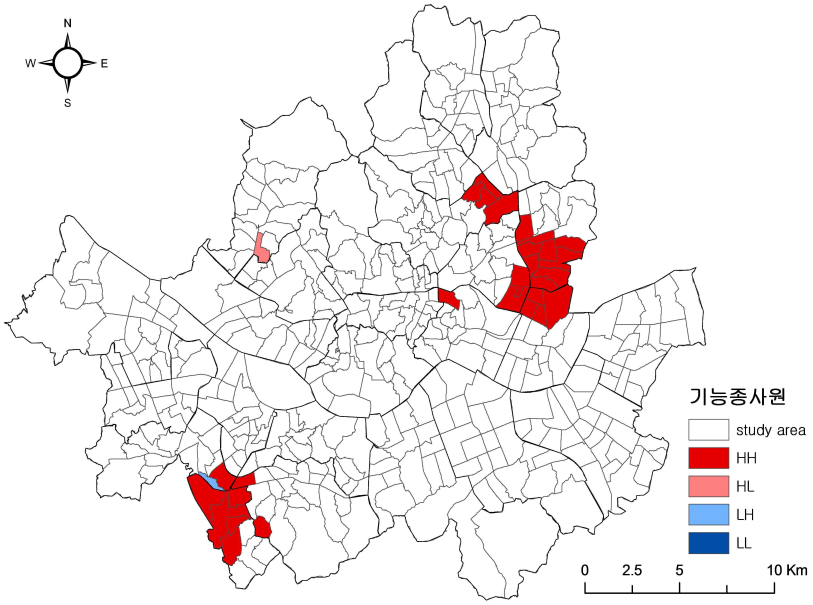
[표 27] 기능종사원의 LISA 결과 (2009)

기능종사원					
지역(구)	지역(동)	Moran' I	Z-score	P-value	Type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0.4144	2.1552	0.0311	HH
광진구	중곡1동	0.6289	2.3810	0.0173	HH
	중곡2동	1.6331	6.1875	0.0000	HH
	중곡3동	3.3923	13.1480	0.0000	HH
	중곡4동	1.0531	3.6917	0.0002	HH
동대문구	장안1동	4.6947	19.3562	0.0000	HH
	장안2동	4.6694	20.1049	0.0000	HH
중랑구	면목2동	1.9431	7.8872	0.0000	HH
	면목4동	2.2175	8.0488	0.0000	HH
	면목5동	2.5111	10.8560	0.0000	HH
	면목7동	2.8179	9.5470	0.0000	HH
	상봉2동	2.6619	11.2989	0.0000	HH
	중화2동	0.4919	1.9728	0.0485	HH
	망우3동	0.9783	3.2293	0.0012	HH
	면목본동	3.8518	14.2586	0.0000	HH
	면목3·8동	1.2709	4.2746	0.0000	HH
성북구	장위1동	0.8169	3.1991	0.0014	HH
	장위2동	1.2886	4.9574	0.0000	HH
	장위3동	0.5678	2.1463	0.0319	HH
	석관동	0.8620	3.4756	0.0005	HH
은평구	응암3동	-0.5798	-2.0212	0.0433	HL
구로구	구로3동	1.7298	7.0606	0.0000	HH
	가리봉동	-1.1376	-4.0215	0.0001	LH
금천구	가산동	10.0720	32.2471	0.0000	HH
	독산1동	13.3679	39.7502	0.0000	HH
	독산2동	2.3169	7.5719	0.0000	HH
	독산3동	4.5433	18.6101	0.0000	HH
	독산4동	1.2645	4.6609	0.0000	HH
	시흥1동	1.4020	4.0746	0.0000	HH
관악구	난향동	1.7325	6.2285	0.0000	HH
	조원동	1.3304	5.9338	0.0000	HH

위 통계량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그림 28> 링킹사의 핫스팟지도 (2009)



<그림 29> 기능종사원의 핫스팟지도 (2009)

[표 28] 직능별 HH 군집 형성 지역

그룹	지역 / 직능	강남일대	종로-중구 도심일대	중랑-성북 일대	중곡-장안 일대	구로-가산 일대
1	디자이너	○			○	△
	패턴사	○		△	○	△
2	재단사		○	○	○	○
	미싱사		○	○	○	○
	생산관리자		○	○	○	○
3	링킹사			△	○	○
	기능종사원			○	○	○

○: 해당지역 전반에 HH 군집 형성, △: 해당지역 일부분에 HH 군집 형성

이상 LISA를 통해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군집을 분석한 결과 그룹 1의 디자이너와 패턴사는 주로 강남일대와 중곡-장안일대, 구로-가산일대에 중심으로 HH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은 지식과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에 지식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이너와 패턴사의 군집 형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그룹 2의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의 HH 군집은 종로-중구 도심일대, 중랑-성북일대, 중곡-장안일대, 구로-가산일대의 4극체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중구 도심일대와 중랑-성북일대는 패션판매업의 집중과 특화도가 강한 동대문시장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어 생산연계의 이점을 취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이러한 점이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의 HH 군집 형성에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룹 3의 링킹사와 기능종사원은 중곡-장안일대와 구로-가산일대, 그리고 관악구 일부 소수지역에 유의미한 HH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곡-장안일대와 구로-가산일대는 그룹 1, 2, 3의 7가지 직능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일대는 모든 생산 공정을 통합·운영하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닌 패션제조업 밀집지역이라는 특징을 지닌다([표 28] 참고).

Ⅴ.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타 직능과의 관계

패션산업은 모든 생산 공정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부터 단일공정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러한 패션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직능들끼리 서로 밀접하며 연관을 맺고 있는 네트워크 생산체계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던 2009년 서울 지역의 직능별 공간적 군집 결과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직능별 공간적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타 직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로짓 모형을 구축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직능별 공간적 분포와 타 직능과의 관계 분석

1) 분석 방법: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상황은 통계적 응용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과학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항(Binary) 종속변수는 항상 0 또는 1을 갖는 값으로 부호화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개의 값 모두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두 값 중 하나에 대한 반응확률을 모형화 하려 하는 것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의 기본 개념이다.

π를 $X=x$일 때, $Y=1$의 확률이라고 가정하고, π를 묘사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선형모형을 사용한다면, 확률에 대한 모형은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i = Pr(Y=1|X=x) = \beta_0 + \beta_1 x + \varepsilon \qquad \text{〈식 3〉}$$

여기서 π는 확률이므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확률 π와 X 사이의 관계는 로지스틱 반응함수(Logistic Response Function)로 흔히 표현될 수 있다. 이는 S 형태의 곡선을 취하며, 〈식 4〉와 같이 모형화 하여 재표현 될 수 있다.

$$\pi = \Pr(Y=1|X=x) = \frac{e^{\beta_0+\beta_1 x}}{1+e^{\beta_0+\beta_1 x}} \qquad \text{〈식 4〉}$$

여기서 e는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이다. 여기서의 확률은 로지스틱 분포의 분포함수(누적확률함수)로 모형화 된 것이다. 이러한 로지스틱 모형은 여러 개의 설명변수가 있는 형태로 바로 일반화될 수 있으며, 확률 π는 다음과 같이 모형화 된다.

$$\pi = \Pr(Y=1|X_1=x_1,\ldots,X_p=x_p) = \frac{e^{\beta_0+\beta_1 x_1+\beta_2 x_2+\ldots+\beta_p x_p}}{1+e^{\beta_0+\beta_1 x_1+\ldots+\beta_p x_p}} \qquad \text{〈식 5〉}$$

〈식 5〉를 로지스틱 회귀함수(Logistic Regression Function)이라고 한다. 이는 모수 β_0, β_1, ..., β_p에 비선형이지만, 로짓 변환(Logit Transformation)에 의해 선형화될 수 있다. π가 어떤 사건의 발생확률이라면, 비율 $\pi/(1-\pi)$는 그 사건의 오즈비(Odds Ratio)라고 부른다.

$1-\pi = \Pr(Y=0|X_1=x_1,\ldots,X_p=x_p) = \frac{1}{1+e^{\beta_0+\beta_1 x_1+\ldots\beta_p x_p}}$ 이므로,

$$\frac{\pi}{1-\pi} = e^{\beta_0+\beta_1 x_1+\ldots+\beta_p x_p}$$

이 된다. 〈식 6〉의 양쪽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다음을 얻는다.

$$g(x_{1,\ldots,}x_{p)} = \log(\frac{\pi}{1-\pi}) = \beta_0 + \beta_1 x_1 + \ldots + \beta_p x_p \qquad \text{〈식 7〉}$$

오즈비에 로그를 취한 것을 로짓(Logit)이라 부른다. 〈식 7〉로부터 로짓 변환은 모수 β_0, $\beta_{1,}$ ..., β_p의 선형함수를 만들어 냄을 알 수 있다. 또한 〈식 5〉의 π는 0과 1사이의 값이었지만 $\log(\pi/(1-\pi))$ 값의 범위는 $-\infty$에서 ∞이므로, 로짓(오즈비에 로그를 취한 것)이 선형회귀적합에 더 적절하다(김기영 외, 2009).

2) 모형의 구성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군집과 타 직능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의 구성을 위하여 변수들을 정리하였다([표 29] 참고). 모형의 가설은 “필요한 직능과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HH 군집의 형성이 견고해질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는 특정 지역(동)이 해당 직능별의 HH 군집인지 아닌지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이항 종속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특정 지역(동)이 HH 군집이다.”는 1로, “특정 지역(동)이 HH 군집이 아니다”는 0으로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설명변수는 타 직능과의 협력 용이성으로 정의하였으므로 7가지 직능별 종사자 수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종속변수가 디자이너의 HH 군집 여부라면, 설명변수는 7가지 직능 중 디자이너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직능의 종사자 수들로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모형의 구성은 1부터 7까지 총 7가지이다.

[표 29] 직능별 HH 군집 형성의 결정 변수

구분	변수설명	변수의 측정	자료 출처
종속변수	직능별 HH 군집	직능별 HH 군집 형성 여부 1: 특정 지역(동)이 HH 군집이다. 0: 특정 지역(동)이 HH 군집이 아니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직능별 자료 (2009)
설명변수	다른 직능과의 협력 용이성	디자이너 종사자 수	한국의류산업협회 직능별 자료 (2009)
		패턴사 종사자 수	
		재단사 종사자 수	
		미싱사 종사자 수	
		링킹사 종사자 수	
		생산관리자 종사자 수	
		기능종사원 종사자 수	

3) 분석 결과

분석에 앞서 변수들이 정규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변수들을 표준화 하였으며, 변수 선택 방법은 후진 단계 선택 조건법으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하였고, 모형의 설명력을 판단하는 통계량으로는 Cox와 Snell의 R^2값과 Nagelkerke의 R^2값을 참고하였다. 이 두 R^2값은 일반 선형 회귀분석의 그것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의미있는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로는 첫째, 종속변수 값에 따라 R^2이 변하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R^2을 설명된 분산이라고 유의미한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구한 R^2은 대개 낮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모형을 평가할 때 R^2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홍세희, 2009).

먼저 그룹 1의 디자이너와 패턴사의 공간적 군집에 영향을 주는 직능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모형 1과 모형 2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1의 카이제곱 값은 79.268로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Cox와 Snell의 R^2값은 0.171, Nagelkerke의 R^2값은 0.576으로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나타냈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 2의 카이제곱 값은 91.595로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Cox와 Snell의 R^2값과 Nagelkerke의 R^2값은 각각 0.194, 0.504로 나타났다([표 30] 참고).

[표 30] 모형 1, 2의 요약 : 디자이너, 패턴사

통계량	모형 1	모형 2
카이제곱(χ^2)	79.268	91.595
Cox와 Snell의 R-제곱	.171	.194
Nagelkerke R-제곱	.576	.504

위 통계량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표 31]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형 1의 경우 디자이너 HH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패턴사, 미싱사, 링킹사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턴사와 링킹사는 Exp(β)값이 1보다 크므로 정(+)적으로 유의미하고, 미싱사는 Exp(β)값이 1보다 작아 부(-)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패턴사의 Exp(β)값은 2.96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패턴사가 많을수록 그 지역에 디자이너 HH 군집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보다 디자이너 HH 군집 형성의 확률이 약 3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미싱사는 디자이너 HH 군집 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디자이너 HH 군집 형성과 패턴사는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며, 미싱사는 디자이너 HH 군집 형성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 2의 분석 결과를 보면 패턴사 HH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디자이너와 기능종사원의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의 Exp(β)값은 각각 1.320, 1.033으로 비교적 패턴사 HH 군집 형성과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는 직능으로 나타났다.

모형 1, 2의 분석결과를 보면 지식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성격을 지닌 디자이너와 패턴사는 서로의 HH 군집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직능간 생산체계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 모형 1, 2의 분석 결과 : 디자이너, 패턴사

종속변수 / 독립변수	디자이너 HH			패턴사 HH		
	Exp(β)	S.E.	p-value	Exp(β)	S.E.	p-value
디자이너				1.320	.050	.000
패턴사	2.969	.182	.000			
재단사						
미싱사	.971	.011	.008			
링킹사	1.245	.088	.012			
생산관리자						
기능종사원				1.033	.009	.000
상수항	-4.767	.540	.000	.009	.481	.000

도출된 변수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그룹 2의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의 공간적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모형 3, 4, 5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3의 카이제곱 값은 186.415로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ox와 Snell의 R^2값은 0.356, Nagelkerke의 R^2값은 0.748로 비교적 안정적인 설명력을 나타냈다. 모형 4의 경우 카이제곱 값은 169.588로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Cox와 Snell의 R^2값과 Nagelkerke의 R^2값은 각각 0.330. 0.728로 모형 4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설명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모형 5의 카이제곱 값은 206.740으로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ox와 Snell의 R^2값은 0.386, Nagelkerke의 R^2값은 0.769로 7개의 모형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표 32] 참고).

[표 32] 모형 3, 4, 5의 요약 :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

통계량	모형 3	모형 4	모형 5
카이제곱(χ^2)	186.415	169.588	206.740
Cox와 Snell의 R-제곱	.356	.330	.386
Nagelkerke R-제곱	.748	.728	.769

위 통계량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표 33]을 참고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3의 경우 재단사 HH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싱사와 생산관리자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싱사와 생산관리자의 Exp(β)값이 각각 1.037, 1.038로 나타나 비교적 재단사 HH 군집 형성과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모형 4의 경우 미싱사 HH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재단사와 기능종사원이 유의미하였고, Exp(β)값은 재단사 1.300, 기능종사원 1.040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5의 생산관리자 HH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일하게 재단사만이 Exp(β)값 1.557로 유의미하였다.

모형 3, 4, 5의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재단사의 경우 미싱사, 생산관리자와 서로의 HH 군집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 이 직능들 간 생산체계의 밀접한 상호 연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기능종사원은 미싱사의 HH 군집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직능으로 나타났다.

[표 33] 모형 3, 4, 5의 분석 결과 :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

종속변수 / 독립변수	재단사 HH			미싱사 HH			생산관리자 HH		
	Exp(β)	S.E.	p-value	Exp(β)	S.E.	p-value	Exp(β)	S.E.	p-value
디자이너									
패턴사									
재단사				1.300	.053	.000	1.557	.057	.000
미싱사	1.037	.011	.001						
링킹사									
생산관리자	1.038	.017	.030						
기능종사원				1.040	.014	.006			
상수항	.003	.687	.000	.003	.666	.000	.004	.619	.000

도출된 변수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마지막으로 그룹 3의 링킹사와 기능종사원의 공간적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직능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6의 카이제곱 값은 61.085로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ox와 Snell의 R^2값은 0.134, Nagelkerke의 R^2값은 0.363으로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모형 7의 경우 카이제곱 값은 111.677로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Cox와 Snell의 R^2값과 Nagelkerke의 R^2값을 살펴본 결과 각각 0.232, 0.589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고).

[표 34] 모형 6, 7의 요약 : 링킹사, 기능종사원

통계량	모형 6	모형 7
카이제곱(χ^2)	61.085	111.677
Cox와 Snell의 R-제곱	.134	.232
Nagelkerke R-제곱	.363	.589

위 통계량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표 35]와 같이 모형 6과 7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형 6의 링킹사 HH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싱사, 생산관리자, 기능종사원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싱사와 기능종사원의 Exp(β)값은 각각 1.022와 1.036으로 정(+)적인 영향을, 반대로 생산관리자의 경우 Exp(β)값이 0.967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 7의 경우 기능종사원 HH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미싱사, 링킹사, 생산관리자가 유의미한 직능 변수로 도출되었다. 미싱사와 링킹사의 Exp(β)값은 각각 1.051과 1.171로 기능종사원 HH 군집 형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생산관리자는 모형 6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직능 변수로 나타났다.

모형 6, 7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재단이나 봉제작업의 보조와 마무리를 담당하는 기능종사원의 경우 미싱사, 링킹사와 서로의 HH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직능들 간 생산체계의 밀접한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관리자는 기능종사원과 링킹사의 HH 군집 형성에 모두 기여도가 비교적 낮은 직능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35] 모형 6, 7의 분석 결과 : 링킹사, 기능종사원

종속변수 / 독립변수	링킹사 HH			기능종사원 HH		
	Exp(β)	S.E.	p-value	Exp(β)	S.E.	p-value
디자이너						
패턴사						
재단사						
미싱사	1.022	.008	.007	1.051	.010	.000
링킹사				1.171	.070	.025
생산관리자	.967	.017	.042	.967	.017	.049
기능종사원	1.036	.012	.004			
상수항	.019	.367	.000	.007	.511	.000

도출된 변수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지금까지 7가지 직능의 HH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타 직능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직능별로 타 직능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능별 HH 군집 형성 지역이나 직능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대체로 두 직능 간의 밀접한 상호적 연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능별 패션산업이 하나의 복잡한 망(network)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직능의 성격과 HH 군집 형성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집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패션산업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현황과 추이를 파악한 후, 부문별·지역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패션산업의 집중과 특화 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통해 7가지 직능별 패션산업의 분포 패턴과 공간적 군집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군집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타 직능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부문별 패션산업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본 결과 패션제조업은 음(-)의 성장률을 나타냈고, 패션판매업은 미미하지만 양(+)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패션제조업과 패션판매업은 11년 동안 상반된 성장 추이를 나타냈다.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전체 패션산업은 음(-)의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을 기준연도로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지역별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 지역의 패션산업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패션산업의 약 50~60%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산업이 수도권 지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2005년, 2010년 패션산업의 공간적 분포를 부문별·지역별로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패션제조업은 3개 연도 모두 전반적으로 동대문 시장 인근 자치구인 서울 중구, 중랑구, 성동구, 동대문구, 종로구와 더불어 금천구에 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패션판매업의 경우 의류 도매 및 소매 상가가 밀집해 있는 서울 중구 지역이

독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지계수를 적용하여 2000년, 2005년, 2010년 수도권 패션산업의 분포 특징을 부문별·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패션제조업은 서울 전역에 모두 높은 수준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특히 서울의 북동쪽에 위치한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지역에 패션제조업이 상당히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션제조업의 특화 수준은 최근으로 올수록 상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패션판매업의 경우 서울 중구 지역에만 높은 수준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패션산업을 7가지 직능별로 나누어 그의 분포 패턴과 공간적 군집을 확인하기 위해 전역적 스케일과 국지적 스케일의 두 가지 차원에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디자이너부터 기능종사원까지 7가지 직능의 분포 패턴이 모두 공간상에 유의한 수준에서 집적(Clustering)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7가지 직능에 대한 LISA 결과가 보여주는 공간적 군집 형성 지역을 토대로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본 결과 그룹별 공간적 군집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룹 1은 디자이너와 패턴사로 주로 강남일대와 중곡-장안일대, 구로-가산일대에 중심으로 HH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은 지식과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적지이기 때문에 지식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이너와 패턴사의 군집 형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그룹 2는 재단사, 미싱사, 생산관리자로 이들의 HH 군집은 종로-중구 도심일대, 중랑-성북일대, 중곡-장안일대, 구로-가산일대의 4극체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종로-중구 도심일대와 중랑-성북일대에 HH 군집이 형성되는 것은 패션판매업의 집중과 특화도가 강한 동대문시장과 지리적인 근접성을 유지하여 생산 연계의 이점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룹 3의 링킹사와 기능종사원은 중곡-장안일대와 구로-가산일대, 그리고 관악구 일부 소수지역에 유의미한 HH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1, 2, 3의 7가지 직능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군집 지역은 중곡-장안일대와 구로-

가산일대로 나타났으며, 이 일대는 모든 생산 공정을 통합·운영하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닌 패션제조업 밀집지역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넷째, 7가지 직능별 공간적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타 직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7개의 로짓 모형을 구축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식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성격을 지닌 디자이너와 패턴사는 서로의 HH 군집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직능간 생산체계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단사의 경우 미싱사, 생산관리자와 서로의 HH 군집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 보다 밀접한 상호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재단, 봉제작업의 보조와 마무리를 담당하는 기능종사원의 경우 미싱사, 링킹사와 서로의 HH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직능들 간 상호적 연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생산관리자는 기능종사원과 링킹사의 HH 군집 형성과 비교적 연계성이 약한 직능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각 직능별로 타 직능과의 연계성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직능별 HH 군집 형성 지역이나 직능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 대체로 두 직능 간의 밀접한 상호적 연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섬유 및 봉제산업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던 기존의 연구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패션산업으로 확장하여 부문별·직능별로 나누어 그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산업의 분포 및 입지에 대한 이론화 작업의 기반이 될 것이며, 향후 패션산업의 분포 및 입지계획과 관련된 정책 입안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군집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능 변수만을 고려하여 설명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직능별 패션산업의 공간적 군집 형성에는 보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속성을 고려함으로써 추후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현수, 1995, “유연성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서울 의류산업의 유연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양미, 2010, “광고산업의 집적 특성과 광고제작의 공간적 네트워크”, 대한지리학회지 45(2), pp.256-274.

국토연구원, 2004, 공간분석기법, 한울아카데미.

김기영·전명식·강현철·이성건, 2009, (예제를 통한)회귀분석, 자유아카데미.

김미성·이승철, 2009, “제도적 변화와 해외직접투자: 대 중국 한국 섬유·의류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3(4), pp.663-673.

김선배, 1988, “한국 섬유공업의 기술변화와 입지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23(2), pp.37-60.

김은정, 1999, “한국섬유산업의 재구조화(I) :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리학논구 19, pp.79-96.

문남철, 2003, “한국 섬유·의류산업 해외생산입지의 동태성”, 국토지리학회지 37(4), pp.409-426.

박규택, 1997, “1960년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과 섬유 공업의 대구 집중화 현상”, 대한지리학회지 32(3), pp.359-370.

박소현·이금숙, 2011, “사교육 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 수도권 지역 사설학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1), pp.33-51.

박양춘·김은정, 2001, “한국섬유산업의 재구조화(Ⅱ)”, 지리학논구 21, pp.1-21.

손미영, 2003, “패션산업의 세계화 추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요소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정렬, 2011, “모란 및 국지모란지수를 이용한 도시용수 이용의 공간패턴과

그 변화 분석 -미국 남동부 카운티들을 대상으로-", 지역연구 27(2), pp.77-97.

유혜경·정찬진·황진숙, 2012, (실무를 위한)패션산업 이해, 수학사.

이승철, 2007, "전환경제하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가치사슬과 네트워크: 대베트남 한국 섬유·의류산업 해외직접투자 사례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pp.93-115.

이승철·김미성, 2010,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네트워크와 착근성: 대중국 한국 섬유·의류 투자 중소기업 사례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4(4), pp.623-634.

이철우·박양춘·김은정, 2000,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와 생산체계의 공간분화", 대한지리학회지 35(2), pp.207-225.

이철우·박양춘·박규택, 1999,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와 지역경제 발전 전략", 대한지리학회지 34(2), pp.155-175.

이희연·황은정, 2008, "창조산업의 집적화와 가치사슬에 따른 분포특성: 서울을 사례로", 국토연구 58, pp.71-93.

정경석·문태헌·정재희·허선영, 2009,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시·공간적 도시범죄 패턴 및 범죄발생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2(1), pp.12-25.

주성재, 2006,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공간적 집적 특성 : 새로운 부흥의 중심지로서 서울 강남지역의 등장", 대한지리학회지 41(3), pp.245-266.

주수현·이선영·김영재, 2008, "입지 특성에 따른 섬유·패션산업의 생산성 변화 분석 -부산지역 섬유·패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24(3), pp.59-86.

지현철·이승철, 2007, "생산자본의 국제화 전략 및 입지결정요인 : 한국 대베트남 섬유·의류 해외직접투자 사례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1(4), pp.469-483.

최현우·김계현·이철용, 2007, "해양환경 공간분포 패턴 분석을 위한 공간자기

상관 적용 연구 -광양만을 사례 지역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4), pp.60-74.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 2010, 「2010 전국 봉제업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국외문헌

Anselin, L., Florax, R. J. G. M., and Rey, S. J., 2004, *Advances in spatial econometrics: methodology, tools and applications*, Berlin : Springer.

Bradley, S. P., Hausman, J. A., and Nolan, R. A., 1993, *Globalization, technology, and competition: the fusion of computers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1990s,* Boston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Dicken, P., 2011, *Global Shift: Mapping the Changing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6th ed.), New York : Guilford Press.

Dickerson, K. G., 2003, *Inside the Fashion Business*(7th ed.), Upper Saddle River, N.J. : Pentice Hall.

Nahm, K. B., 2001, "Emerging New Industrial Cluster along the Cheonggyechon-ro and Its Social Capital",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4(2), pp.79-96.

Scott, A. J., 2006, "The Changing Global Geography of Low-Technology, Labor-Intensive Industry: Clothing, Footwear, and Furniture", *World Development* 34(9), pp.1517-1536.

Wenting, R., 2008, "Spinoff dynamics and the spatial formation of the

fashion design industry, 1858–2005",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8(5), pp.593-614.

Wong, D. W. S. and Lee, J., 2005, *Statistical analysis of geographic information with ArcView GIS and ArcGIS*, John Wiley & Sons, p.30.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Dyzm&articleno=7080092&categoryId=350106&regdt=20110626174254#ajax_history_home

산업연구원 산업통계포털 http://www.istans.or.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섬유산업연합회 www.kofoti.or.kr

한국의류산업협회 http://kaia.or.kr

ArcGIS Desktop 9.3 Help

http://webhelp.esri.com/arcgisdesktop/9.3/index.cfm?TopicName=Modeling%20spatial%20relationships&anchor=LMS-Link1

[부록 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패션산업 부문별 해당 산업

부문	산업코드		산업명
패션 제조업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C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C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C14130	한복 제조업
		C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C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C14193	가죽의복 제조업
		C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C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C14201	원모피 가공업
		C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C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C14300	편조의복 제조업
		C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C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C14491	모자 제조업
		C14499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110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C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C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C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C15211	구두류 제조업
		C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C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자료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부록 표 1 계속]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패션산업 부문별 해당 산업

부문		산업코드		산업명
패션 판매업	패션 도매업	G4641		가정용 섬유,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도매업
			G46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G46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G46415	내의 도매업
			G46416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G46417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장신품 도매업
		G4642		신발 도매업
			G46420	신발 도매업
	패션 소매업	G4741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G47412	한복 소매업
			G47413	남녀용 정장 소매업
			G47414	유아용 의류 소매업
			G47415	내의 소매업
			G47416	셔츠 및 기타의복 소매업
			G47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G4742		신발 소매업
			G47420	신발 소매업
		G4743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G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자료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ABSTRACT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dust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Yoo, Ji Yeon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Consumer demand for fashion products has been diversifying from low price fast fashion products to high-price designed fashion products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socio-economic trend. And thus fashion industries have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ajor knowledge-based industries creating high value-added which tends to be located in the economic cores as well as one of the labor-intensive low-value added industries. Furthermore, the economic geography of fashion industries has changed dynamically with economic globalization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erefore, it is very meaningful to examine the economic geography of Korean fashion industries in recent year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industries during the last decade.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locational changes and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ere fashion

industries are highly agglomerated. For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s overall trend of the Korean fashion industries in first, and then examines the changes in the fashion industries distribution by segment by applying Location Quotient(LQ). For examination of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dustries, this study applies Moran's I Index of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for seven functional sectors of fashion industries. The global and local agglomeration patterns are examined for each functional sector. The results clarify the distinction in the spatial agglomeration patterns among the seven functional sectors of fashion indust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Logit models are developed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functional sectors in their spatial agglomeration distribution patterns. By conduct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draws 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patial agglomeration of each functional sector and the other functional sectors affecting its spatial agglomeration.

This study analyzes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dust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explains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functional se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to give right directions for fashion industry locational policies and planning.. And also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basis of theorization of economic geography of Korean fashion industries in the contemporary knowledge based economy.